

20세기 초의 식물민속지식

『동의보감』 초부 수록 식물을 중심으로

노무라 미치요(野村美千代)

장안대학교 호텔경영과 외국인 강의전담교원, 민속학 전공

michiyo@hanmail.net

- I. 머리말
 - II. 식용식물 민속지식의 형성과정
 - III. 『朝鮮産野生藥用植物』(1936)과
『朝鮮産野生食用植物』(1942)에 대해서
 - IV. 『동의보감』 초부와 『약용』·『식용』 대조
 - IV. 맺음말
-

이 논문은 2019년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 기초 및 중점연구 공동연구과제로 수행된 연구입(AKSR2019-C04).

I. 머리말

인간의 생활문화는 정신적인 측면과 물질적인 측면으로 이루어져 있다. 물질적인 측면의 기본적인 것으로 의식주가 있으며 이를 구성하는 물건은 전통시대의 경우 자연산의 재료가 이용되었다. 한반도에서 의식주 재료로 큰 비중을 차지했던 것이 식물이다.

특정 지역과 주민의 생활문화를 민속이라고 부르고 생활문화를 지탱하는 지혜의 총체를 민속지식라고 한다면, 의식주의 재료로 사용되었던 식물은 민속을 지탱하는 민속식물이며, 그것을 사용하는 지혜는 식물의 민속지식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민속학에서 민속식물 연구는 신화와 구비전승과 같은 정신민속만큼 기초 학문이며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한 분야라고 할 수 있다.

최근에 주목을 받고 있는 민족식물학(Ethnobotany)은 식물 자체뿐만 아니라 식물의 이용 등 인간의 문화적 특질까지 연구대상으로 하고 있다.¹ 각 민족이 오랜 세월 동안 쌓아온 지혜(local knowledge)를 연구대상으로 한다면 문제의식이 상통하기 때문에 민속식물 연구는 민족식물학의 일부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동양에서 식물 연구는 약제를 연구하는 본초학에서 시작되었다. 근대가 되어 서양에서 새로운 지식들이 들어와 학문이 세분화된 후 식물 연구는 식물 자체를 계통적으로 이해하는 식물분류학이 주류가 되었다. 그러나 세분화되기 이전의 전근대시기에는 본초학 관련 문헌에 민속과 관련된

1 두산백과 '민족식물학' www.doopedia.co.kr/doopedia/master/master.do?_method=view&MAS_IDX=101013000698824(2019.11.8 검색). "각 민족의 재배 식물의 기원이나 전파·분포 등을 연구하는 학문으로 식물의 품종 개량, 재배 식물의 이용 부분, 그 용도 및 재배 기술 등 인간의 문화적 특질도 연구 대상에 포함된다."

다양한 지식이 포함되어 있다.

유명한 『동의보감』(1613)에도 마찬가지로 한의학 지식뿐만 아니라 식물에 대해서도 학문이 세분화되기 이전의 다양한 정보가 담겨있다. 민속지식은 경험적이고 전승적인 것이므로 체계적으로 글로 남겨져 있지 않다. 문헌에는 물론 한계가 있지만, 먼 과거의 민속지식에 접하기 위해서는 문헌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

근대가 되어 식물분류학의 성과로서 한반도의 식물도 잇따라 ‘발견’되고 채집·분류되었다. 대표적인 성과로 1915년부터 순차 간행된 『朝鮮森林植物編』²과 1922년에 간행된 『朝鮮植物名彙』³ 등이 있다.⁴ 본고에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1936년에 간행된 『朝鮮産野生藥用植物』⁵(이하 『약용』이라고 부름)과 1942년에 간행된 『朝鮮産野生食用植物』⁶(이하 『식용』이라고 부름)이다.

식물의 약용적 측면은 예부터 식물연구의 중심이었으며 본초학에서 다루어져 왔다. 반면 식용적 측면은 구황식물에 대한 관심이 중심이었다. 조선총독부 임업시험장이라는 같은 기관에서 약용식물과 식용식물에 대한 보고서가 별도로 나왔다는 것은 약용식물과 식용식물이 범주를 달리하여 별개의 것으로 인식되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근대화 이전에는 문헌상 뒤섞인 상태였던 식물 민속지식이 근대화 이후 약용과 식용으로 분류되어가는 과정은, 민속지식의 연속과 변용을 확인할

2 朝鮮總督府林業試驗場, 『朝鮮森林植物編』(朝鮮總督府林業試驗場, 1915-1939).

3 朝鮮總督府, 『朝鮮植物名彙』(朝鮮總督府學務局, 1922).

4 이 시기의 식물학 형성과정에 대해서는 다음 연구가 참고가 된다. 이정, 『식민지 조선의 식물연구(1910-1945): 조일 연구자의 상호작용을 통한 상이한 근대 식물학의 형성』,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2013).

5 朝鮮總督府林業試驗場, 『林業試驗場報告 第22號 朝鮮産野生藥用植物』(朝鮮總督府林業試驗場, 1936).

6 朝鮮總督府林業試驗場, 『林業試驗場報告 第33號 朝鮮産野生食用植物』(朝鮮總督府林業試驗場, 1942).

수 있는 절호의 사례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본초학의 집대성인 대표적 문헌 『동의보감』을 텍스트로 삼고 『약용』과 『식용』을 여과장치로 사용하여 그 과정에서 어떤 상황을 볼 수 있는지를 확인해 식물 민속지식의 근대적 변용의 일단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앞서 문헌상의 식용식물 민속지식의 형성과정을 야생식물을 중심으로 간단하게 정리한 후, 민속식물 연구에 아직 잘 활용되고 있지 않은 『약용』과 『식용』에 대해 자료소개의 의의를 담아 설명하고, 그 후 『동의보감』과 『약용』·『식용』의 식물명 대조를 하겠다. 다만 『동의보감』은 수록범위가 방대하기 때문에 이번 연구에서는 실험적으로 「탕액편」 초부를 범위로 한정시키고자 한다.

Ⅱ. 식용식물 민속지식의 형성과정

민속지식은 경험으로 형성되고 구전으로 전승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과정을 추적할 방법은 이제 없다. 단지 책에 부분적으로 담긴 것을 바탕으로 엿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국에서는 한의학이 발달했기 때문에 식물의 약용 측면은 충분히 연구되었고 활용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본 장에서는 그러한 성과의 도움을 받으면서 식물의 식용 측면, 특히 재배식물이 아니라 야생식물에 주목하여 그 민속지식의 형성과정을 개략적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서양에서든 동양에서든 식물의 연구는 약물의 연구를 대상으로 하는 본초학이 기원이 되었다.⁷ 중국에서 발달한 본초학의 목적은 ‘不老長生食治

7 본 장은 『식용』의 「Ⅱ 野生食用植物の研究史(야생 식용식물의 연구사)」(4-9쪽)를

却病治療疾病에 사용할 약물 연구에 있었다. 따라서 『神農本草經』(후한(25-220), 저자미상)을 시작으로 명나라의 『本草綱目』(52권, 1596, 李時珍)에 이르기까지 많은 저술이 남아 있지만, 그 내용은 약용식물과 기타 약물의 설명으로 시종하여 야생식용식물을 직접 다룬 것은 많지 않다. 그런 가운데 중국의 본초서 중 야생식용식물에 직접 관련된 저술로 『食性本草』(10권, 937-957, 陳士良), 『日用本草』(八卷, 1328-1332경, 吳瑞), 『救荒本草』(4권, 1406, 朱橚)⁸, 『食鑑本草』(4권, 1741, 柴喬), 『食物本草』(같은 이름의 책 다수, 명(1368-1644)) 등이 있다.

조선에서는 『구황촬요(救荒撮要)』(1권1책, 진흥청, 1554)가 제일 오래되었다. 그 후 효종대에 신숙(申澍)이 보유를 붙였다. 책의 내용은 주로 기근 때의 구황용 식물의 식용법에 대한 설명이다.

『산림경제(山林經濟)』(4권4책, 홍만선(洪萬選, 1643-1715)⁹에는 야생식용 식물 40종이 기재되어 있다. 이들은 종수편(種樹篇) 산야과품(山野果品), 치포편(治圃篇) 산야채품(山野菜品), 치선편(治膳篇) 채품수장법(菜品收藏法), 구황편(救荒篇) 등에 보인다. 구황편에는 50여 종 식물의 구황적 식용법이 기재되어 있지만, 내용은 거의 앞선 『구황촬요』를 답습하고 있으며 겨우 2, 3가지 사항이 추가된 데에 불과하다고 해서 『구황촬요』에 나온 식물의 수도 50여 종이었다고 생각된다. 『목민심서(牧民心書)』(48권 16책, 1818,

바탕으로 필요에 따라 원전을 참고하면서 정리했다.

- 8 『식용』에서는 『救荒本草』에 수록되어 있는 식물에 특별히 표시를 해서 정리했다. 그 종수는 '骨子植物(중요한 식물)' 중 91종이었고 '補遺植物(추가보완 식물)' 중 88종이었다.
- 9 『식용』의 「II 野生食用植物の研究史」(4-9쪽)에서는 『산림경제』를 순조대에 서유구(徐有渠)가 증보했다고 하지만 『산림경제』를 증보한 사람은 유중림(柳重臨)이고 그 성과는 1766년(영조 42)의 『증보산림경제(增補山林經濟)』(15권 8책)이다. 서유구가 엮은 것은 『임원경제지(林園經濟志)』(113권 52책)이다. 이 착오 때문에 본문 중에서 『임원경제지』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정약용(丁若鏞)에는 야생식용식물에 대한 내용이 많지 않지만 일부 구황식물에 대한 언급이 있다고 한다.

『임원경제지(林園經濟志)』(113권 52책, 1827, 서유구(徐有榘)에 대해서는 당시의 나물에 주목하여 고찰한 논문¹⁰에서 식용식물의 개요를 알 수 있다. 재배되는 식용식물에 대해 쓴 「관휴지(灌畦志)」에 나오는 나물 128종이 표로 정리되었다.¹¹ 또한 「인제지(仁濟志)」 ‘구황(救荒)’ 편에서는 명나라 『구황본초』에 기재된 400여 종의 식물 중 “조선 땅에 나는 2백여 종을 추려 정리”했다고 한다.¹² 그리고 “젓가락을 사용해 밥반찬으로 먹는 ‘나물론’의 성립에 필요한 목록(inventory) ‘나물’로서 226종을 표로 제시하였다.¹³

근대에 들어 1913년에는 모리 다메조¹⁴가 조선의 야생식용식물에 대해서 보고했다.¹⁵ 이 보고에서는 식용되는 야생식물 233종을 나열한 다음 각각의 식용법을 순서대로 설명하고 있다. 바탕이 된 자료는 저자가 기존에 조사한 내용과 저자가 근무하고 있는 경성고등보통학교 2학년들이 여름 방학을 이용해 표본과 조선명, 조리법을 지역의 노인들에게 물어보고 수집한 것과 1912년에 조선총독부 내무부 지방과가 각 도청에 의뢰하여 각 지역의 야생식용식물의 채집과 조리법 등을 조사했을 때의 표본이다. 그리고 『동의

10 김재희, 「『임원경제지』의 나물과 21세기 민족식물학: 「관휴지(灌畦志)」와 「인제지(仁濟志)」를 중심으로」, 『민속학연구』 제36호(2015).

11 김재희(2015), 위의 논문, 66쪽.

12 김재희(2015), 위의 논문, 71쪽.

13 김재희(2015), 위의 논문, 72-75쪽.

14 모리 다메조(森爲三)는 1909년에 한국에 와서 1911년부터 경성고등보통학교의 교사로 재직했으며 1925년부터 경성제국대학 예과(豫科) 교수가 되었다. 광복 후 귀국하여 1946년부터 효고(兵庫)현립 의과대학 예과 교수, 1957년부터 무코가와(武庫川)여자대학 교수로 재직. 식물분류학의 연구 다음으로 동물을 연구해 특히 민물고기 연구로 저명하다(上田常一, 「森爲三先生の追憶」, 『朝鮮學報』第26輯(1963)).

15 森爲三, 「山野ニ自生セル植物中朝鮮人ノ食用ニ供スルモノニ就テ」, 『朝鮮總督府月報』第3卷 第3號(1913).

보감』과 『산림경제』 등 문헌에 있는 내용도 참조했다.

1919년에는 우에키 호미키¹⁶가 조선의 구황식물에 대해서 보고했다.¹⁷ 여기에서는 식용야생식물과 특수재배작물 387종이 식용법과 함께 정리되었다. 그러나 그들 중에는 조선에서 식용되는지 알 수 없지만 중국과 일본의 고서에 나오는 식물까지 모두 수록했다고 한다. 1922년에는 전술의 모리 다메조가 『朝鮮植物名彙』¹⁸를 간행했다. 이 책에서는 3,000여 종의 식물 중 야생종이고 구황에 이용할 수 있는 식물을 따로 표시했는데 그 종류가 282종이다.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문헌에 나타난 조선의 식용식물 종수를 간단하게 정리하면 표1과 같다.

이 표로 말하고 싶은 것은 옛날에는 식용식물이 적었고 시대와 함께 식용식물의 종수가 증가했다는 것이 아니다. 전술했듯이 민속지식은 구전

표1-문헌에 나오는 조선 식용식물 종수

연대	제목	간행처 내지 저자	식용식물의 종수
1554	『救荒撮要』	진흥정	약 50종
1643-1715	『山林經濟』	홍만선	약 40종
1827	『林園經濟志』	서유구	200여종
1913	『山野ニ自生セル植物中朝鮮人ノ食用ニ供スルモノニ就テ』	森爲三	233종
1919	『朝鮮の救荒植物』	植木秀幹	387종
1922	『朝鮮植物名彙』	森爲三	282종

16 우에키 호미키[植木秀幹]의 논문 게재 당시 직함은 수원고등농림학교 교수이다. 우에키는 1907년에 수원고등농림학교 교수로 부임 후 조선의 소나무 분포와 형태적 변이 연구로 1928년에 도쿄[東京]제국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광복 후 일본에 귀국해 마츠야마[松山]농과대학장을 역임했다(이경준, 『산에 미래를 심다』(서울대학교출판부, 2006), 28-33쪽).

17 植木秀幹, 「朝鮮の救荒植物」, 『朝鮮彙報』10·11月號(1919). 2014년에 영인본이 일본 龍溪書舎에서 간행되었다(植木秀幹·朝鮮總督府山林部, 『韓国併合史研究資料112 朝鮮の救荒植物/火田整理ニ関スル参考書』(龍溪書舎, 2014).

18 森爲三, 『朝鮮植物名彙』(朝鮮總督府學務局, 1922).

으로 전승되므로 문헌에 나오는 내용이 전부 아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다른 문헌에는 구황시의 식용법에 특화된 책도 있고 살림 전반을 다룬 책도 있으며, 식물명에 주목한 책도 있는 등 편찬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동일선상에서 논하기가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표를 제시한 이유는, 전근대시기인 19세기 초 『임원경제지』에 이미 200여종이 식용식물로 인식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기 때문이다.

16세기 말의 『구황촬요』와 17세기 말, 18세기 초의 『산림경제』에 수록된 식물은 40-50종에 불과하지만, 구황식물을 모으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다른 식물을 수록할 수 없었을 수도 있고 그 후에 식물민속지식이 넓혀지고 발전했을지도 모른다. 하여간 19세기 초 『임원경제지』 시기에는 200여종에 대한 식용식물민속지식이 형성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들이 근대에 들어서 근대적 방법으로 재인식되고 기록되면서 현재 우리가 식물민속지식에 접근할 수 있는 단서가 되었다.

Ⅲ. 『朝鮮産野生藥用植物』(1936)과 『朝鮮産野生食用植物』(1942)에 대해서

1. 『朝鮮産野生藥用植物』(1936)의 개요와 기재된 식물의 종수

조선총독부 임업시험장에서 1936년에 간행된 『약용』의 저자는 하야시 다이지(林泰治)와 정태현(鄭台鉉)이다. 조선총독부 임업시험장 가부라기 도구지(鐔木徳二)가 쓴 서문에서 이 보고서는 임업시험장 기사(技師)인 하야시와 촉탁인 정태현의 조사결과라고 밝히고 있다.

서언에서는 야생약용식물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¹⁹

야생 약초목류의 채취 및 이용은 그 재배와 더불어 상당히 유리한 농산촌의 부업이며 농산촌 진흥에 간과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산림 소유자는 이로 인해 종래 포기되었던 이익을 거두고 임리(林利)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다. 농산촌 주민은 이를 통해 부업을 획득하고 잉여 노동력을 활용해 조금이라도 자가 경제를 풍부하게 할 수 있음과 동시에 수시로 필요한 가정약을 자급하여 보건을 다할 수 있게 된다.

산림의 소유자는 그때까지 놓쳤던 약용식물에 대한 이익을 챙기고 농산촌의 주민들은 약용식물에 관한 일을 부업으로 하면서 남아있는 노동력을 활용해 경제를 향상시키고 가정약의 자급까지,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다고 하는 것이다. 자원과 노동력을 효율적으로 남김없이 활용하려고 하는 일제의 지배의도가 엿보인다.

『약용』의 조사는 1933년도 이후부터 실시된 것으로, 조선 임야에 자생하는 약용식물의 종류, 서식처, 산지 또는 분포, 식물의 특징, 약용부위, 약재의 채취와 조제법 또는 처리 방법, 보호 및 증식법, 가격과 수요량, 효용 등에 대한 조사가 일단 완료되었기에 출간했다고 한다. 보고서를 정리하는데 사용된 자료는 현지조사와 문헌이다. 원료 식물은 직접 조사한 것 이외에 각 군(郡)에 조회한 자료도 활용되었으며 약료(藥料)는 대구와 대전의 약령시, 그리고 경성과 평양 등의 건재국(乾材局)에서 직접 조사했다. 현지조사는 모두 정태현에 의한 것이며, 『약용』 내의 식물 사진 촬영과 거의 모든 기사 집필도 그에 의한 것이라고 한다.

‘각론’에서 원료식물종이 개별로 해설되는데 한 페이지 당 한 식물이다.

19 『약용』, 2쪽.

표본 사진과 함께 ‘약명’
 으로서 한자명과 그 발
 음이 알파벳으로 표기
 되었으며 ‘식물명’으로
 서 일본명, 학명, 조선
 명이 표기되었다. 다음
 으로 ‘서식처(生地)’, ‘산
 지 및 채집지’, ‘특징’,
 ‘약용부’, ‘채집’(시기),
 ‘조제법’, ‘보호 및 증
 식’, ‘가격과 수요량’, ‘효능’, ‘기타’로 이어진다.



그림1-『朝鮮産野生藥用植物』(1936) 식물별 해설부분 (18-19쪽)

이 책에 수록된 원료식물종은 사진과 해설이 있는 총 227종이 골자(骨子) 식물이며, 같은 약명으로 사용되는 다른 식물 198여 종이 더 있다. 그리고 민간에서 드물게 생약으로 사용되는 종류가 43종 있으며 중국과 일본에서 사용되는 약용식물이고 조선에서 자생하지만 사용되지 않는 175종이 보충되었다. 따라서 이 책에 수록된 원료식물수는 야생종만으로 643종²⁰, 재배종은 83종이 보충되었으므로 총 726종의 식물이 수록되어 있는 것이다.

2. 『朝鮮産野生食用植物』(1942)의 개요와 게재된 식물의 종수

『식용』도 『약용』과 마찬가지로 조선총독부 임업시험장 간행이며 『약용』으로부터 6년 후에 나왔다. 저자 역시 하야시와 정태현인 것을 서문에서 알 수 있다.

20 원문에는 640종으로 되어 있지만 계산 오류로 보인다.

식물 조사는 『약용』과 동일하게 1933년 시작이고 1939년까지 진행되었지만, 처음 3년은 『약용』 완성을 위해 시간을 투자했으므로 실질적으로 조사내용 정리에 종사한 기간은 1936년 이후의 4년²¹이었다고 한다. 조사방법은 조선 전국의 각 군(郡)에 조회²²하여 실제로 식용되는 식물표본을 보내게 하여 그 명칭과 식용부분, 식용법, 소비량의 다소에 대해 답변을 요구하여 검토하였다. 그리고 직접 지방을 현지조사²³ 했으며 문헌으로 보충하였다.

이 책의 목차 구성은 “I. 서언, II. 연구사, III. 재료 및 조사방법, IV. 성적(결과를 의미함)”이며 IV장은 ‘총설’과 ‘각설’로 나누어져 있다. ‘각설’은 각 식물의 설명이다.

‘총설’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1. 조선산 야생 식용식물의 종류, 2. 생지, 3. 분포, 4. 식물의 특징, 5. 식물의 식용부, 6. 채취계절, 7. 식용법(조리법), 8. 보호 및 증식, 9. 소비량 또는 산액, 10. 야생식용식물의 식량가치, 11. 문헌”이다. 이들 중 8, 9, 10이 주목된다.

당시 일본은 중일전쟁(1937-1945)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경제를 전시체제화하기 위해 국가의 모든 인적·물적 자원을 정부가 통제하고 운용할 수 있게 국가총동원법을 1938년에 규정하였다. 이를 계기로 식품과 의료 등 생활필수품이 배급제가 되었다.²⁴ 『식용』 간행의 전년인 1941년에는 태평양전쟁(1941-1945)이 시작되어 더욱 많은 물자가 부족해 가는 상황에

21 『식용』, 3-4쪽.

22 조회장(照會狀) 발송은 1932년 12월 24일이었고 답변 마감일은 1934년 10월 4일, 응답률은 43%였다(『식용』, 9, 11쪽).

23 현지조사는 1933년 6월부터 1939년 9월까지 7년 동안에 총 12회 수행되었다(『식용』, 11쪽).

24 당시의 시대상황에 대해서는 다음의 저서들이 참고가 된다. 山之內靖, 『總力戰體制』(筑摩書房, 2015); 纈纈 厚, 『[増補版]總力戰體制研究 日本陸軍の國家總動員構想』(社会評論社, 2018).

서 식량부족도 우려되었다.

『식용』의 조사는 『약용』과 같은 시기에 시작되었지만, 특히 ‘총설’의 8, 9, 10의 기술은 식량 부족이라는 전시 상황과 관련이 깊은 것으로 생각된다. ‘I. 서언 2. 조사 의의’²⁵에는 식용식물 활용에 따른 경제적 이익의 확보와, 대체식량과 야전군량 개발에 대한 언급이 있다.

이 책에 수록된 조선산 야생식용식물은 균심류(菌蕈類)과 해조류를 제외하고 당시 실제로 조선 농산촌에서 식용되고 있는 식물들이다. 위의 조사로 얻어진 표본 총 2,898점을 정리하여 500종까지 줄였고, 이들 중 식용가치를 검토하여 대표적인 307종을 ‘골자(骨子)식물’로 정하였다. 그 외로 ‘유사식용종’을 골자식물의 각 항에 기재했는데 그 수가 210종이다. 또한 현지조사에서는 식용되는지 확인할 수 없었지만, 여러 문헌에서 식용식물로 기재되었으며 조선에 자생하는 215종, 총 732종이 수록되었다.²⁶

골자식물 하나하나에 대해서 해설하는 ‘각설’에서는 표본사진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약용』과 중복되는 식물을 사진을 생략했기 때문이다²⁷.

각 식물의 ‘식물명’으로서 ‘종명’이 일본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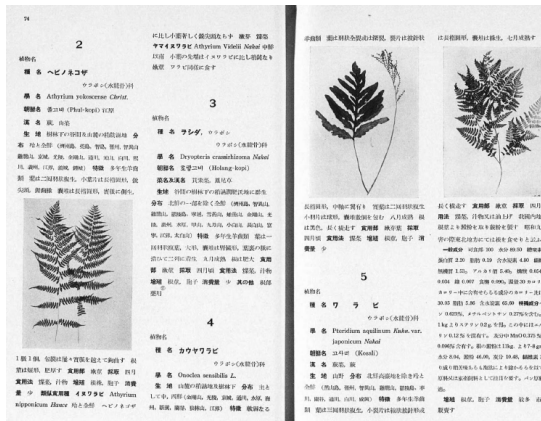


그림2-『朝鮮産野生食用植物』(1942) 식물명 해설부분 (74-75쪽)

- 25 『식용』, 2쪽.
- 26 『식용』, 12쪽.
- 27 『식용』, 3쪽.

가타카나로 표기되었고 과와 학명이 이어진다. 조선명은 한글과 발음의 알파벳 표기, 방언의 경우 지역 이름이 기재되었다. 다음으로 한(漢)명, 생지, 분포, 특징, 식용부분, 채취(시기), 식용법, 증식법, 소비량, 유사식용종이 제시되었다. 『食用植物學』²⁸에서 영양성분 등이 기재된 식물은 그 내용을 참조해서 ‘식용법’ 부분에 일반성분과 특수성분을 제시하였다.

참고로 『식용』의 내용과 자료적 가치에 대해서 언급한 논고²⁹가 있다. 이 논고에서는 『식용』에 제시된 수량적 자료를 한반도 지도상에 그리거나 그래프를 이용해서 시각화해 『식용』의 자료 가치를 확인했다.

Ⅲ. 『동의보감』 초부와 『약용』·『식용』 대조

조선 중기 본초학의 집대성인 『동의보감』(1613년 간행, 25책)은 너무나 유명하고 그 자료적 가치에 대해서는 새삼 언급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한의학의 원전일 뿐만 아니라 다양한 약제와 조제법도 망라하고 있어서 한의학뿐만 아니라 다른 학문 분야에도 귀중한 자료를 제공해 준다. 특히 식물 유래의 약재도 많아 식물에 관한 지식도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다.

여기에서는 식물민속지식의 연속과 변용을 엿볼 수 있는 한 사례로써, 조선 중기의 『동의보감』을 기본자료로 삼고 근대의 『약용』·『식용』과 대조해 식물 수록 여부를 확인하고자 한다.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초부의 품명과 현대명, 향명을 정리한 목록³⁰의

28 服部健三·近藤信, 『食用植物學』(南山堂書店, 1935).

29 辻 稜三, 「『朝鮮産野生食用植物』の内容とその資料的価値」, 『朝鮮學報』第123輯(1987).

30 김일권, 「전통시대 생물분류체계와 관련 문헌자료 고찰」, 『정신문화연구』 제38권 1호(2015), 150-155쪽.

품명(한자명)을 단서로 『약용』 ‘藥名索引’(261-265쪽), ‘(二)漢名索引’(277-281쪽), 『식용』 ‘(二)漢名索引 (골자식물만 수록)’(234-239쪽)을 이용해 수록 여부를 확인한 후 표로 정리하였다.

이 대조작업의 제일 큰 한계점은 한자명을 단서로 했기 때문에 동음이자 등 한자명 표기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찾지 못하는 점이다. 다만 『약용』과 『식용』 어느 한쪽의 일본명을 알 수 있으면 그것을 단서로 다른 한쪽에서 찾을 수 있는 경우가 있었다. 『동의보감』 수록순 전체표는 분량이 많으므로 부록으로 첨부하였다.

대조의 결과 『동의보감』 초부에 수록된 212종의 식물 중 『약용』과 『식용』 양쪽에 수록된 식물은 56종이었으며, 『약용』에만 수록된 식물이 48종, 『식용』에만 수록된 식물이 6종, 『약용』과 『식용』 양쪽에 수록되지 않았던 식물이 102종이었다. 각 결과를 정리한 표는 다음 표2-5이다.

표2-『약용』과 『식용』에 수록된 『동의보감』 초부 식물

연번	번호	『동의보감』			『약용』			『식용』		
		품명	현대이름	항명	번호	쪽수	약명 조선명 한자명 일본명	번호	쪽수	조선명 한자명 일본명
1	초1	黃精/ 황정	죽대	득대	38	55	黃精 등굴네, 괴물긋 玉竹, 萎蕤 アマドコロ	39	92	등굴네, 기막물긋 小筆管菜, 黃精, 萎蕤, 玉竹 アマドコロ
2	초3	甘菊花/ 감국화	국화꽃	강성황	213	230	甘菊 감국 黃菊, 苦蕒 シマカンギク	280	205 -206	감국 甘菊, 黃菊, 苦蕒 シマカンギク, ハマカンギク
3	초5	苦蕒/ 고의	들국화		213	230	동상	280	205 -206	동상
4	초11	白朮/ 백출	삼주	삼두	209	226	蒼朮, 白朮 삼주 馬薊, 山薊	272	202	삼주 山菜, 蒼朮, 白朮, 馬薊,

연번	『동의보감』				『약용』			『식용』		
	번호	품명	현대이름	항명	번호	쪽수	약명 조선명 한자명 일본명	번호	쪽수	조선명 한자명 일본명
							오케라			山薊, 創頭草 オケラ
5	초12	蒼朮/ 창출	창출		209	동상	동상		202	동상
6	초14	牛膝/ 우슬	쇠무릎	쇠무릎디 기	70	87	牛膝 쇠물팍 牛藤, 馬靑草 牛ノコヅチ	81	113	쇠물팍 山萆菜, 對節菜, 馬靑草, 牛膝 牛ノコヅチ
7	초18	獨活/ 독활	뿔두릅	뿔두릅	149	166	獨活(일명 土當歸) 뿔두릅 - 우드	191	165	뿔두릅 獨活, 土當歸, 杜當歸 マンセンウド
8	초19	羌活/ 강활	강호리	강호리	154	171	羌活 강활 - 테우센오니우드	197	167	강활 羌活 テウセンオニウド
9	초20	升麻/ 승마	끼절가리	식덜가리	78	95	升麻 승마, 끼덜가리뿔뿔(東醫) - 오호미쯔바시요우마	92	118	승마 升麻, 龍牙 フブキシヤウマ
10	초21	車前子/ 차전자	질경이	질경이, 一名뽕 이	195	212	車前子 질경이, 뽕부장이 車輪菜, 車前草 オホバコ	240	186	질경이, 뽕부장이, 뽕조개 車輪菜, 車前草, 芥苳 オホバコ
11	초22	木香/ 목향	목향물		88	105	木防己 땃땃이땃글 - 아랏쯔쯔라프지	105	124	땃땃이땃글 碧羅, 木防己, 木香 アヲツヅラフヂ
12	초23	薯蕷/ 서여	마	마	41	58	山藥 마 薯蕷 ヤマノイモ	48	96	마 山芋, 薯蕷, 山藥 ヤマノイモ

연번	『동의보감』				『약용』			『식용』		
	번호	품명	현대이름	항명	번호	쪽수	약명 조선명 한자명 일본명	번호	쪽수	조선명 한자명 일본명
13	초24	澤瀉/ 택사	쇠귀나물	쇠귀나 물	18	35	澤瀉 쇠귀나물 野茨菰, 水慈菰 オモダカ	12	79	쇠귀나물 苳苳, 澤瀉 オモダカ
14	초25	遠志/ 원지	애기풀	아기풀	133	150	遠志, 小草 원지 - イトヒメハギ	169	153	아기풀 地蔞草, 遠志, 瓜子金, 靈神草, 小草 ヒメハギ
15	초47	營實/ 영실	짚레나무	달위	106	123	營實 가시나무 野薔薇, 葉王子 ノイバラ	140	140	짚레나무, 가시나무 野薔薇, 葉王子, 營實 ノイバラ
16	초50	茜/천	꼭두서니	꼭두송	196	213	茜根 꼭두서니풀 茜草 アカネ	243	188	꼭두서니, 가삼자리 茜草, 茅蒐, 土茜苗, 過山龍 アカネ
17	초51	五味子/ 오미자	오미자	오미즈	90	107	五味子 오미자 - テウセンゴミシ	106	124	오미자 五味子, 北五味子 テウセンゴミシ
18	초55	蛇床子/ 사상자	뱀도라	비암도라	160	177	蛇床子 배암도랏(東醫) 破衣草, 窮衣 ヤブジラミ	210	173	목밭뒤뒤기, 배암도랏 破衣草, 窮衣, 蛇床子 ヤブジラミ
19	초56	地膚子/ 지부자	땃사리	대뻥리	69	86	地膚子 땃사리 掃帚菜, ハハキギ	79	112	땃사리 掃帚菜, 地膚草, 獨掃苗 ハハキギ
20	초58	茵陳蒿/ 인진호	더위지기, 사철쑥	더위자기	206	223	茵陳 사철쑥 -	261, 265	196- 198	사철쑥 靑蒿, 野苧蒿, 茵陳蒿

연번	『동의보감』				『약용』			『식용』		
	번호	품명	현대이름	항명	번호	쪽수	약명 조선명 한자명 일본명	번호	쪽수	조선명 한자명 일본명
							イハヨモギ			カハラニンジン 애당쑥 茵陳蒿 ハマヨモギ
21	초63	瓜蒌根/ 과루근	하늘타리	하늘타리	200	217	瓜蒌仁, 天花粉 하늘수박, 한울타리 藥瓜, 天瓜, 花苦瓜 テウセンカラスウリ	251	192	하늘수박, 한울타리 瓜蒌, 天瓜, 花苦瓜, 天團子 テウセンカラスウリ
22	초65	當歸/ 당귀	승검초	승엄초	153	170	當歸 당귀, 승엄초(東醫) - オニノダケ	196	167	승엄초(東醫), 당귀 當歸 オニノダケ
23	초67	通草/ 통초	으름덩굴	으름 너출	63	80	通草, 通脫木 등침 - キダチウマノスズクサ	104	123	으름덩굴 山果, 林下婦人, 木通, 通草 アケビ
24	초73	百合/ 백합	개나리	개나리	37	54	百合根 나리, 당개나리 卷丹, 家百合 オニユリ	35	90	당개나리 百合根, 家合, 卷丹 オニユリ
25	초76	白芷/ 백지	구리때	구리대	152	169	白芷 구릿대 - コエソニウ	194	166	구릿대 白芷 コエソニウ
26	초78	黃芩/ 황금	속씨은풀	속서 근풀	186	203	黃芩 속서근풀 - コガネバナ	234	184	속서근풀 野樹豆花, 黃芩, 條芩, 腐腸 コガネバナ
27	초81	紫莞/ 자완	탱알	탱알	208	225	紫莞 개미취 - シラン	271	202	개미취, 미역취 紫莞, 返魔草 シラン

연번	『동의보감』				『약용』			『식용』		
	번호	품명	현대이름	항명	번호	쪽수	약명 조선명 한자명 일본명	번호	쪽수	조선명 한자명 일본명
28	초83	前胡/ 전후	사양채	사양치	156	173	前胡 동치, 사양채 - シヤク	195	166	바대나물, 개당귀 前胡 ノダケ
29	초86	酸漿/ 산장	파리	쏘아리	188	205	酸漿 파리, 명팔 姑娘菜 ホホソキ	236	185	파리, 명팔 姑娘菜, 酸漿草, 燈籠草, 王母珠 ホホソキ
30	초93	艾葉/ 애엽	약쑥잎	수지발 쑥	-	246 (補遺)	(“民間で生薬として 稀に使用される”) 약쑥 ホソバヨモギ	264	198	참쑥, 부엉다리쑥 艾蒿, 艾 ホソバヨモギ
31	초98	地榆/ 지유	외나물, 수박풀	외늑물	109	126	地榆 수박풀, 지유초, 외물 地果, 野升麻 ワレモカウ	147	143	수박풀, 지유초, 외물 地榆, 地果, 野升麻 ワレモカウ
32	초99	大薊/ 대계	엉겅퀴	항가시	216	233	大薊 엉겅퀴, 가시나물 - カラノアザミ	277, 282	204, 206	히레아자미 엉거시 飛廉, 飛維, 大薊 가시나물, 엉겅퀴 小薊, 刺薊, 大薊 カラノアザミ
33	초100	小薊/ 소계	조방가새	조방 가시	217	234	小薊 조바리 - テウセンアザミ	282, 283	206, 207	동상 조바리, 사라귀 小薊 テウセンアザミ
34	초101	澤蘭/ 택란	택란		182	199	澤蘭 개조박이, 씌씨리 地瓜兒苗 シロネ	227	181	개조박이, 씌씨리 玉環菜, 地瓜兒苗, 澤蘭 シロネ

연번	『동의보감』				『약용』			『식용』		
	번호	품명	현대이름	항명	번호	쪽수	약명 조선명 한자명 일본명	번호	쪽수	조선명 한자명 일본명
35	초 124	紅草/ 홍초	불강이	노화	64	81	蔘貫 노인장때 - オホケタデ	70	108	노인장때 馬蔘, 紅草, 大蔘 オホケタデ
36	초 138	烏頭/ 오두	오두		75	92	草烏, 烏頭 박우초, 싸막풀 藤兒島 ツルウツ	90	117	늦저갈나무, 박우초, 까막풀 草烏, 鴛鴦菊 ツルウツ ³¹
37	초 142	葶藶子/ 정력자	두루미냉이	두르미나이	96	113	葶藶子 냉이 - ヒメグンバイナツナ	118	130	냉이 過藍菜, 葶藶子 ヒメグンバイナ ツナ
38	초 147	射干/ 사간	범부채	범부채	42	59	射干 범부채 蕭竹 ヒアフギ	49	97	범부채 虎扇草, 篤竹蘭, 射干花 ヒアフギ
39	초 154	大戟/ 대극	버들웃	버들웃	134	151	大戟 우독초, 능수버들 愚毒草, 勒馬宣 タカトウダイ	166	152	우독초, 능수버들 愚毒草, 澤漆, 大戟, 貓兒眼睛, 勒馬宣 トウダイグサ ³²
40	초 155	澤漆/ 택칠	버들웃싸		134	151	동상	166	152	동상
41	초 157	狼牙/ 낭야	낭야초	낭야초	102	119	狼牙, 龍牙草 집신초 - キンミツヒキ	133	137	집신나물 金線草, 龍牙草, 狼牙 キンミツヒキ
42	초 159	商陸/ 상륙	자리공	자리공	71	88	商陸 장늑, 자리공썰휘 昌陸, 當陸 ヤマゴバウ	83	114	장늑, 자리공썰휘 商陸, 章柳根, 常陸 ヤマゴバウ ³³
43	초 165	天南星/ 천남성	두여머 조자기	두여머조 자기	27	44	天南星 턴남성 - ヒロハテンナンセウ	16	81	턴남성 天南星, 虎掌草 アムールテンナ ンセウ ³⁴

연번	『동의보감』				『약용』			『식용』		
	번호	품명	현대이름	항명	번호	쪽수	약명 조선명 한자명 일본명	번호	쪽수	조선명 한자명 일본명
44	초 167	羊蹄/ 양제	소루쟁이		67	84	羊蹄根 소리장이, 솔고지 牛舌 ナガバキシギシ	77	111	솔구장이, 소리장이 敗毒, 羊蹄草, 牛舌草 ギシギシ
45	초 168	酸模/ 산모	승아	승아	245	補遺	과싱아 スイバ	76	111	시금, 시광이 酸漿草, 酸模, 山羊蹄, 牛舌頭 スイバ/スカンボ
46	초 170	蕭蓄/ 편축	온마답	온막답	65	82	蕭蓄 노가리초, 옥매듭, 매대풀 百節 ミチャナギ	75	110	노가리초, 옥매듭 百節, 蕭竹, 蕭蓄 ミチャナギ/ニハ ヤナギ
47	초 185	蛇莓/ 사매	뱀딸기	비암 딸기	103	120	蛇莓 배암딸기, 개미딸 雞冠果, 野楊梅 ヘビイチゴ	134	138	배암딸기, 개미딸 雞冠果, 野楊梅, 蛇莓 ヘビイチゴ
48	초 186	葎草/ 울초	한삼덩굴	한삼		補遺 (未 利用 野生 薬用 植物) 248	カナムグラ 葎草	67	107	한삼덩굴 葎草, 勒藥, 葛勒子秧 カナムグラ
49	초 189	白附子/ 백부자	흰바곳	흰바곳	76	93	白附子 백부자, 초오 - キバナトリカブト	90	117	초138와 동일(矢저깁나물, 박우초, 끼막풀 草烏, 鴛鴦菊 'ツルウツ'), '유사식용종'으로 키バナトリカブ ト 기재

연번	『동의보감』				『약용』			『식용』		
	번호	품명	현대이름	항명	번호	쪽수	약명 조선명 한자명 일본명	번호	쪽수	조선명 한자명 일본명
50	초 192	蒲公英/ 포공초	민들레	안준 방이, 又名므음 드레	224	241	蒲公英 민들네, 안질방이 白鼓釘, 蒲公英 ケイリンタンポポ	304	217	민들네, 안질방이 亭亭丁菜, 蒲公英, 白鼓釘 マンゼンタンポポ
51	초 194	酢漿草/ 초장초	괴승아, 괭이밥	괴승아	123	140	酢漿草 시금풀 酸米草 カタバミサウ	161	149	시금풀, 괴승아 酢漿草, 酸米草 タチカタバミ (カタバミサウは 類似植物にあり)
52	초 196	夏枯草/ 하교초	제비꽃	저비꽃	59	76	夏枯草 저비꽃 白蕊草 カナビキサウ	232	183	가지꽃나물, 꿀박망이, 가지복도리 夏枯草, 乃東草, 鐵色草 ウツボクサ
53	초 201	萱草/ 흰초근	원추리	원추리, 又名넙넙 물	35	52	萱草 원추리 黃花菜, 金萱 エゾゼンテイクワ	31	88	원추리 黃花菜, 金萱草 エゾゼンテイクワ
54	초 202	野茨菰/ 야자고	무릇	물웃	18	35	澤瀉 쇠귀나물 野茨菰, 水慈菰 オモダカ	41	93	물긋, 무릇씩 野茨菰, 剪刀草 ツルボ, サントイカサ
55	초 206	虎杖/ 호장	감제	감테	66	83	虎杖根 감절새, 감젓썰휘 苦杖, 大蟲杖, 酸桶笋 マルバイタドリ	74	110	싱아 虎杖根 オホオヤマソバ
56	초 207	草烏/ 초오	바곳	바곳	75		초138, 초189와 동일(草烏, 烏頭 박우초, 까막풀 藤兒烏 ツルウツ)	90	117	초138, 초189와 동일(矢저갈나물, 박우초, 까막풀 草烏, 鴛鴦菊 ツルウツ)

표3-『약용』에 수록되고 『식용』에 수록되지 않은 『동의보감』 초부 식물

연번	『동의보감』				『약용』		
	번호	품명	현대이름	항명	번호	쪽수	약명 조선명 한자명 일본명
1	초2	菖蒲/창포	석창포	석창포	26	43	菖蒲根 장포 白菖 シャウブ
2	초7	天門冬/천문동	천문동		33	50	天門冬 부자망나물, 홀아지죽 地文冬 クサスギカヅラ
3	초9	生地黃/생지황	생지황		191	208	地黃, 生地黃, 熟地黃, 乾地黃 디황 姿口嫻 アカヤチワウ
4	초10	熟地黃/숙지황	숙지황		191		동상
5	초15	茺蔚子/총울자	익모초	암눈비야	181	198	益母草, 茺蔚子 익모초 - メハジキ
6	초16	柴胡/시호	뫼미나리	뫼미나리	157	174	柴胡 뫼미나리, 시호 - ミシマサイコ
7	초17	麥門冬/맥문동	겨우살이	겨으사리	36	53	麥門冬, 大葉麥門冬 겨우사리불휘(東醫), 비웃 - コヤブラン
8	초27	細辛/세신	족도리풀		61	78	細辛 족도리풀, 세신 - ウスバサイシン
9	초28	石斛/석곡	석곡풀	석곡풀	45	62	石斛 석곡, 석곡풀 林蘭 セキコク

연번	『동의보감』				『약용』		
	번호	품명	현대이름	항명	번호	쪽수	약명 조선명 한자명 일본명
10	초30	赤箭/적전	천마, 수자해조쫘	턴마	44	61	天麻, 赤箭 수자해쫘 - オニノヤガラ
11	초 103	天麻/천마	수자해쫘	슈자히쫘	44		초30과 동일
12	초33	卷栢/권백	부처손	부터손	7	24	卷栢 부처손(東齧), 바위손 長生草, 萬年松 イハヒバ
13	초38	絡石/낙석	담쟁이덩굴	담장이	170	187	絡石 마사나무 白花藤 テイカカヅラ
14	초40	白茯苓/백질러	흰납가새풀	납가시	124	141	白茯苓 납가새 茯苓 ハマビシ
15	초41	黃芪/황기	단너삼	둔너삼	114	131	黃芪 단너삼 - キバナワウギ
16	초43	防風/방풍	방풍	병풍늑물	159	176	防風 방풍 - ハマバウフウ
17	초44	蒲黃/포황	부들꽃가루	부들쫘꺾	17	34	蒲黃 부들, 부들박망이(꽃) - コガマ
18	초45	續斷/속단	검살풀		185	202	續斷 속단 - オホバキセワタ

연번	『동의보감』				『약용』		
	번호	품명	현대이름	항명	번호	쪽수	약명 조선명 한자명 일본명
19	초46	漏蘆/누로	절구대	절국대	219	236	漏蘆 장구채, 등등박망이 - ヒゴタイ
20	초54	忍冬/인동	겨우살이덩굴	겨우사리너출	197	214	忍冬, 金銀花 닌동덩굴 - スヒカヅラ
21	초59	王不留行/ 왕불류행	장구채	당고재	74	91	王不留行 림질초, 장고새, 매대초 女婁菜 フシグロ
22	초61	菼耳/사이	도꼬마리	돋고마리	225	242	蒼耳子 도꼬마리 菼耳, 靑葶子 ヲナモミ
23	초64	菩參/고삼	쓴너삼, 도둑놈의지팡 이	쁜너삼	120	137	菩參 뱀의정자나무 野槐 クララ
24	초68	芍藥/작약	함박꽃	함박꽃	81	98	赤芍藥 적작약, 함박꽃 木芍藥 シヤクヤク
25	초71	玄參/현삼	현삼		190	207	玄參 현삼 逐馬 ゴマノハグサ
26	초72	秦艽/진교	망초	망초	77	94	秦艽 진교 牛扁 ツルレイジンサウ
27	초77	淫羊藿/음양곽	삼지구엽초	삼지구엽플	85	102	淫羊藿 음양곽 三枝九葉草 テウセンイカリサウ

연번	『동의보감』				『약용』		
	번호	품명	현대이름	항명	번호	쪽수	약명 조선명 한자명 일본명
28	초80	茅/모	띠	뽕	19	36	茅根 썩 白茅, 茅針, 茅草 チガヤ
29	초82	紫草/자초	지치	지최	175	192	紫草 지초 藐此草 ムラサキ
30	초85	白鮮/백선	검화	검화	125	142	白鮮皮 검햇불황 - ハクセン
31	초87	藁本/고본	고본		155	172	藁本 고본 - ニホヒウヅキヤウ
32	초88	石韋/석위	석위		1	18	石韋 석위 - ヒメヒトツバ
33	초91	白薇/백미	아마존	아마존	173	190	白薇 산수박 萬年草, 竹葉細辛, 徐長卿 スズサイコ
34	초95	水萍/수평	수평		29	46	浮萍 개구리밥 水萍 アヲウキクサ
35	초96	浮萍/부평	개구리밥	머구리밥	29		동상
36	초 140	半夏/반하	끼무릇	씩물웃	28	45	半夏 반하, 괴무릇 - カラスビシヤク
37	초 141	大黃/대황	장군풀	장군풀	68	85	大黃 장군풀 - カラダイワウ

연번	『동의보감』				『약용』		
	번호	품명	현대이름	항명	번호	쪽수	약명 조선명 한자명 일본명
38	초 145	旋覆花/선복화	하국꽃	하국	221	238	旋覆花 들국화, 옷풀 金佛草 ラグルマ
39	초 146	藜蘆/여로	박새	박새	40	57	藜蘆 백영초, 박새, 백광노 山葱 シユロサウ
40	초 171	狼毒/낭독	오독도기	오독뽕기	135	152	狼毒 오독독이 - ヒロハタカトウダイ
41	초 174	馬鞭草/마편초	마편초		177	194	馬鞭草 마편초 鐵馬鞭 クマツヅラ
42	초 176	白頭翁/백두옹	할미꽃	주지꽃, 又云할미십가 비	83	100	白頭翁 할미꽃 老姑草 テウセンオキナグサ
43	초 179	馬兜鈴/마두령	쥐방울	쥐방울	62	79	馬兜鈴 쥐방울덩굴 - マルバノウマノスズクサ
44	초 182	連翹/연교	개나리	어어리나무	165	182	連翹 신리화, 개나리꽃나무 辛夷 テウセンレンゲウ
45	초 187	鶴虱/학슬	여우오줌풀	여의오줌	211	228	鶴虱 천일초 金空耳 ガンクピサウ
46	초 191	木賊/목적	속새	속새	5	22	木賊 속새 - トクサ

『동의보감』					『약용』		
연번	번호	품명	현대이름	항명	번호	쪽수	약명 조선명 한자명 일본명
47	초 193	穀精草/곡정초	고위까람	고윗가람	30	47	穀精草 고위기름 文星草 ホシクサ
48	초 198	燈心草/등심초	골풀, 골속	골속	31	48	燈心草 골속, 조릿대속 莞, 燈草 苧

표4- 『식용』에 수록되고 『약용』에 수록되지 않은 『동의보감』 초부 식물

『동의보감』					『식용』		
연번	번호	품명	현대이름	항명	번호	쪽수	조선명 한자명 일본명
1	초36	芎藭/궁궁	궁궁이	궁궁이	205	171	산미나리, 물뚝갈, 기름나물 石防風, 藎芎 シラカハバウフウ

- 31 이 식물은 독성이 있지만 『식용』은 조선의 농·산촌에서 실제로 식용되고 있는 식물을 조사하고 정리한 것으로 독성이 있는데도 당시에는 식용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4. 식물의 특징 (부록) 유독식물'에서 『식용』에는 31종의 유독식물이 포함되고 있다는 언급이 있다. "유독식물을 식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극히 위험하므로 식용식물에서 제외되어야 하지만 본 보고서에 기재된 골자식용식물은 조선 민간에서 고래 관습상 실제로 식용되는 것을 그대로 모은 것이므로 게재를 하기로 하였지만 앞으로는 일제 먹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32쪽)고 하였다. 'トウダイグサ'의 '식용법'에서는 삶은 후 말려놓고 나중에 묵은나물로 식용된다고 기술한 다음 '맹독을 함유하므로 먹지 않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 32 '식용법'에서 삶아서 먹는다고 기술한 다음 독이 있으므로 먹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하였다.
- 33 '식용법'에서 삶아서 먹는다고 기술한 다음 독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하였다.
- 34 '식용법'에서 삶아서 먹는다고 기술한 다음 독이 있으므로 되도록 먹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하였다.

『동의보감』					『식용』		
연번	번호	품명	현대이름	항명	번호	쪽수	조선명 한자명 일본명
2	초52	旋花/선화	메꽃	멧꽃	220	178	메삭 續筋根, 薊子根, 美草, 旋花, 串枝蓮 ヒルガホ
3	초57	景天/경천	평의비름, 돌나물	집우디기	122	132	집우지기 景天, 麒麟草 ホソバノキリンサウ
4	초84	敗醬/패장	마타리		248	191	개미취, 맛타리 女郎花, 敗醬, 黃花龍芽, 馬草 ヲミナヘシ
5	초 148	蛇含/사함	뱀허	비아미허	139	139- 140	가락지나물, 흔디말기덤불 蛇含草, 五兒頭苗, 五皮楓 ヲヘビイチゴ
6	초 208	佛耳草/ 불이초	떡쑥		286	208	과쑥 清明草, 佛耳草, 鼠麴草 テウセンウスユキサウ

표5-『약용』과 『식용』에 수록되지 않은 『동의보감』 초부 식물

연번	번호	품명	현대이름	항명
1	초4	白菊花/백국화	흰국화	흰국화
2	초6	人參/인삼	인삼	삼
3	초8	甘草/감초	감초	
4	초13	兔絲子/토사자	새삼	새삼
5	초26	龍膽/용담	과남플	과남플
6	초29	巴戟天/파극천	부조초	
7	초31	菴藷子/엄려자	개제비쑥	진쑥봉
8	초32	菥蓂子/석명자	굵은냉이	굵근나이
9	초34	藍藤根/남등근	가사새물	가스새
10	초35	藍/남	쪽	족
11	초37	黃連/황련	깁깁이플	
12	초39	薺荔/벽려	줄사철나무	
13	초42	肉蓯蓉/육종용	육종용	

연번	번호	품명	현대이름	항명
14	초48	決明子/결명자	초결명	초결명
15	초49	丹參/단삼	단삼	
16	초53	蘭草/난초	난초	
17	초60	白蒿/백호	다복쑥	곧날제흰복
18	초62	葛/갈	참	츄
19	초66	麻黃/마황	마황	
20	초69	蠶/여	타래붓꽃	분긋
21	초70	瞿麥/구맥	패랭이꽃	석독화
22	초74	知母/지모	지모	
23	초75	貝母/패모	패모	
24	초79	狗脊/구척	고비	
25	초89	瓦韋/와위	와위	
26	초90	葶藶/비해	멀애	멀애
27	초92	大靑/대청	당청화	
28	초94	惡實/악실	우영	우영
29	초97	王瓜/왕과	쥐참외	쥐참외
30	초102	防己/방기	방기	
31	초104	阿魏/아위	아위	
32	초105	高良薑/고량강	양강	
33	초106	百部/백부	파부초	
34	초107	茴香/회향	회향풀	
35	초108	款冬花/관동화	관동화	
36	초109	紅藍花/홍람화	잇꽃	닛
37	초110	臙脂/연지	연지	
38	초111	牧丹/목단	모란	모란
39	초112	三稜/삼릉	매자기	미자기
40	초113	薑黃/강황	강황	
41	초114	葶藶/필발	필발	
42	초115	羅摩子/나마자	새박덩굴	새박
43	초116	鬱金/을금	심황	심황
44	초117	盧薈/노회	알로에	
45	초118	玄胡索/현호색	현호색	
46	초119	肉豆蔻/육두구	육두구	
47	초120	補骨脂/보골지	파고지	

연번	번호	품명	현대이름	항명
48	초121	零陵香/영릉향	혜초	
49	초122	縮砂蜜/축사밀	사인	
50	초123	蓬莪茂/봉아술	봉출	
51	초125	莎草/사초	향부자	향부초
52	초126	胡黃連/호황련	호황련	
53	초127	紅豆蔻/홍두구	홍두구	
54	초128	甘松香/감송향	감송향	
55	초129	垣衣/원의	담위의 이끼	담우희잇기
56	초130	地衣/지의	땅에 낀 이끼	사해씨인잇기
57	초131	井中苔/정중태	우물 속의 이끼	
58	초132	屋遊/옥유	옥유	
59	초133	鱧腸/예장	한련초	한련초
60	초134	茅香花/모향화	흰띠꽃	흰뒤꽃
61	초135	使君子/사군자	사군자	
62	초136	白豆蔻/백두구	백두구	
63	초137	附子/부자	바곳	
64	초139	天雄/천웅	천웅	
65	초143	萸蓍子/낭탕자	미치광이	초우영
66	초144	草蒿/초호	제비쑥	저비쑥
67	초149	常山/상산	조팝나무	조팝나모
68	초150	甘遂/감수	감수	
69	초151	白斂/백렴	가위톱	가희톱
70	초152	赤斂/적렴	빨간가위톱	
71	초153	白芨/백급	대암풀	대암풀
72	초156	貫衆/관중	회초미	회초미
73	초158	羊躑躅/양척촉	철쭉꽃	덕툭곳
74	초160	靑箱子/청상자	맨드라미	만드라미
75	초161	威靈仙/위령선	으아리, 수취나무	솔취나무
76	초162	牽牛子/견우자	나팔꽃	
77	초163	萹麻子/비마자	아주까리	아쫓가리
78	초164	蒴藿/식조	말오줌나무	말오줌나무
79	초166	鬼臼/귀구	귀구	
80	초169	菰根/고근	줄	
81	초172	菴蓂/희렴	진득찰	음희채, 진득찰

연번	번호	품명	현대이름	항명
82	초173	苧根/저근	모시풀	모시
83	초175	何首烏/하수오	새박뿌리, 온조롱	江原道名온조롱, 黃海道名새박
84	초177	芭蕉/파초	파초	반초
85	초178	蘆/노근	갈대	갈
86	초180	劉寄奴草/유기노초	유기노초	
87	초181	骨碎補/골쇄보	넉줄고사리	
88	초183	續隨子/속수자	연보	
89	초184	蘭茹/여여	여여	
90	초188	雀麥/작맥	귀리	귀보리
91	초190	葫蘆巴/호로파	호로파	
92	초195	昨葉荷草/작엽하초	지부지기	짐우디기
93	초197	山茨菰/산자고	까치무릇	가치무릇
94	초199	馬勃/마밭	말불버섯	물불버섯
95	초200	水蓼/수료	물여귀	물엿귀
96	초203	敗天公/패천공	오래 쓴 패랭이	오래쓰던패랭이
97	초204	草豆蔻/초두구	초두구	
98	초205	草果/초과	초과	
99	초209	茴藿/경실	어저귀	어저귀
100	초210	鳳仙花/봉선화	봉선화	봉선화
101	초211	孩兒茶/해아다	해아다	
102	초212	屨屨鼻繩/극섭비승	나막신 앞코	평격지앞코

『동의보감』 초부에 수록된 212종의 식물 중 『약용』에는, 『약용』·『식용』 양쪽에 수록된 56종과 『약용』에만 수록된 48종 총 104종이 수록되어 있었다.³⁵ 이는 『동의보감』 초부 212종의 49%로 거의 절반이다. 『동의보감』 초부에 수록된 약재는 근대에도 절반이 사용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35 『동의보감』에서 두 가지 종류로 나오지만 『약용』과 『식용』에서 하나의 종류로 나오는 것이 표2 연번 2번과 3번, 4번과 5번, 39번과 40번, 표3 연번 3번과 4번, 34번과 35번이다. 『동의보감』에서 세 가지 종류로 나오지만 『약용』과 『식용』에서 하나의 종류로 나오는 것이 표2 연번 36과 49, 56이다. 그러므로 『약용』에서의 실제 수록 식물종수는 97종이 된다.

또한 『약용』의 ‘골자식물’ 227종 중에서도 거의 절반이기 때문에, ‘골자식물’의 절반은 『동의보감』에서 초부에 분류되었던 것이다. 나머지는 『동의보감』의 곡부와 과부, 목부 등으로 분류될 것으로 생각된다.

『식용』에 수록되어 있던 것은, 『약용』·『식용』 양쪽에 수록된 56종과 『식용』에만 수록된 6종의 총 62종으로, 이는 『동의보감』 초부 212종의 29.2%이다. 따라서 『동의보감』 초부 중 약 30%는 근대에 약용뿐만 아니라 식용으로도 이용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식용』의 ‘골자식물’은 307종이며, 『동의보감』의 분류로 보면 약 20%가 초부이고 나머지는 곡부와 과부 등으로 분류되는 종류의 식물로 구성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약용』과 『식용』 양쪽에 수록되지 않은 식물은 102종인데 이것은 『동의보감』 초부 212종의 48%로 거의 절반이다. 이들 중에는 ‘인삼(人參, 초6)’, ‘감초(甘草, 초8)’, ‘쑤(葛, 초62)’ 등 현재도 약용과 식용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 있어서 왜 수록되지 않았는지 의문이다. 이들은 전술 목록의 ‘현대 이름’을 바탕으로 학명을 찾아서 『약용』과 『식용』의 학명색인에서도 찾아보았지만 역시 찾을 수 없었다. 현재 학명과 당시 학명에 차이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약용』과 『식용』보다 먼저 간행된 책³⁶에서는 인삼의 현재 학명으로 색인을 통해 찾을 수 있었다.

양적으로 보아도 『동의보감』 초부 212종의 거의 절반이 수록되지 않았다는 것은 너무 많은 것으로 생각된다. 『동의보감』에는 중국 문헌을 인용한 식물지식도 포함되어 있어서 조선의 당시 상황과 달랐을 가능성도 있지만, 수록되지 않은 식물 중에는 향명(鄉名)이 기재된 것도 많아 조선에서 볼 수 없었던 식물이라고 할 수도 없다.

수록되지 않은 식물을 왜 찾을 수 없었는지, 실제로 수록되지 않았다면

36 村田懋麿, 『土名對照 鮮滿植物字彙』(目白書院, 1932).

왜 수록되지 않았는지 현 시점에서는 알 수 없어서 향후의 과제로 남는다.

『약용』과 『식용』은 저자와 조사 방법, 발행기관이 같지만, 동일 식물이라도 기술에서 차이가 보이는 경우가 있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기술이 달랐던 것은 표6의 3종이다.

①의 경우 『약용』에서는 조선명이 ‘원지’인데 『식용』에서는 ‘아기풀’로 되어 있으며, 한자명은 『약용』에서 따로 제시되지 않았고 약명으로 ‘遠志, 小草’가 제시되었는데 반해 『식용』에서는 ‘地蔞草, 遠志, 瓜子金, 靈神草, 小草’의 5가지가 제시되었다. 일본명도 『약용』은 ‘이토히메하기(イトヒメハギ)’, 『식용』은 ‘히메하기(ヒメハギ)’로 차이가 난다. 해설 부분에서 『약용』은 ‘기타’에서 “본 종과 함께 히메하기(ヒメハギ)를 사용할 경우가 있다”라고

표6- 『약용』과 『식용』에서 기술이 현저히 다른 식물

연번	〈표 2〉 중 연번	『동의보감』			『약용』			『식용』		
		번호	품명	현대 이름	번호	쪽수	약명 조선명 한자명 일본명	번호	쪽수	조선명 한자명 일본명
①	14	초25	遠志 / 원지	애기풀	아기풀	133 150	遠志, 小草 원지 - イトヒメハギ	169 153	아기풀 地蔞草, 遠志, 瓜子金, 靈神草, 小草 ヒメハギ	
②	52	초 196	夏枯草 / 하고초	제비풀	저비풀	59 76	夏枯草 저비풀 白蕊草 カナビキサウ	232 183	가지골나물, 꿀박망이, 가지복도리 夏枯草, 乃束草, 鐵色草 ウツボクサ	
③	55	초 206	虎杖 / 호장	감제	감데	66 83	虎杖根 감절매, 감젓썰취 苦杖, 大蟲杖, 酸桶笋 マルバイタドリ	74 110	싱아 虎杖根 オホオヤマソバ	

했지만 『식용』에서는 ‘유사식물’로도 제시되지 않았다. 한자명은 『약용』에서 ‘*Polygala tenuifolia* WILLDENOW.’, 『식용』에서 ‘*Polygala japonica* Houtt.’라고 되어 있어서 근대 식물분류학에서는 다른 식물로 보인다.

②의 경우 『약용』에서는 조선명이 ‘저비솔’인데 『식용』에서는 ‘가지골나물, 꿀박망이, 가지복도리’로 세 가지가 제시되었다. 『약용』의 약명과 한자명이 ‘夏枯草’과 ‘白藜草’인데 『식용』의 한자명은 ‘夏枯草, 乃束草, 鐵色草’이며 일본명은 『약용』이 ‘가나비키사우(カナビキサウ)’, 『식용』이 ‘우츠보쿠사(ウツボクサ)’이다. 그러므로 ‘夏枯草’ 밖에 공통점이 없다. 학명은 『약용』이 ‘*Thesium chinense* TUROZ.’이고 『식용』이 ‘*Prunella asiatica* Nakai.’이므로 다른 식물로 보인다. 『약용』의 해설부분 ‘기타’에 “본래 夏枯草는 ‘우츠보쿠사(ウツボクサ)’일 것으로 생각되지만 ‘가나비키사우(カナビキサウ)’의 약효가 이와 비슷해서 같은 약명 아래에서 사용되게 된 것이 아닐까”라고 설명되어 있어서, 『동의보감』의 ‘夏枯草’가 가리키는 식물이 어느 한 쪽인지, 아니면 둘 다 가리키는 것인지 알 수 없다.

③의 경우 『약용』의 조선명이 ‘감절새, 감젓썰휘’이고 『식용』은 ‘싱아’이다. 『약용』의 약명과 한자명은 ‘虎杖根’, ‘苦杖, 大蟲杖, 酸桶筭’인데 『식용』은 ‘虎杖根’만 제시하였다. 일본명은 『약용』이 ‘마루바이타도리(マルバイタドリ)’, 『식용』이 ‘오호오야마소바(オホオヤマソバ)’이다. 『약용』의 학명은 ‘*Reynoutria elliptica* MIGO.’, 『식용』이 ‘*Pleuropterypyrum polymorphum* (Ledeb. Nakai.’이다. ‘虎杖’ 이외에는 공통점이 없으며 ‘기타’와 ‘유사식물’에서도 언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혀 다른 식물일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기술의 차이는 보다 연구가 진행된 결과인지, 조사와 기술을 맡은 사람이 달라서 견해 차이가 보이는 것인지, 현 시점에서는 판단할 수 없다.

식물명 중에서도 한자명과 조선명은 포괄적이어서 가리키는 식물이 복수이거나 한자명과 조선명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한 경우에 단서가 되는 것이 학명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학명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학명까지 포함한 각 식물에 대한 자세한 검토는 후속연구로 미루기로 한다.

V. 결론

본 연구는 근대화 이전 민속지식의 근대적 변용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서 식물에 주목하여 조선 중기의 대표적인 텍스트인 『동의보감』과 근대의 『약용』과 『식용』을 사용해서 대조를 하였다. 이에 앞서 한반도 문헌상의 식용식물 민속지식의 형성과정을 야생식물을 중심으로 간단하게 정리하였으며 민속식물연구에 아직 잘 활용되고 있지 않은 『약용』과 『식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자료소개를 하였다.

야생식용식물은 전근대시기인 19세기 초에 이미 200여종이 인식되고 있었으며, 근대에 이르러 근대적 방법으로 재인식되고 그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는 상황이었다.

『동의보감』 초부 목록의 한자명을 단서로 『약용』과 『식용』의 색인을 이용하여 수록 여부를 확인하고 표로 정리한 결과, 『동의보감』 초부에 수록된 212종의 식물 중 『약용』에는 거의 절반이 수록되어 있었으며 『식용』에는 약 30%가 수록되어 있었다. 그러므로 『동의보감』 초부에 수록된 식물이 근대에는 절반이 약용으로 사용되고 있었으며 약 30%가 식용으로 사용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다만 한자명을 단서로 대조한 한계가 있어서 현재도 많이 사용되고 있는 식물을 찾지 못하거나 『약용』과 『식용』 양쪽에 수록된 식물도 해설을

자세히 보면 다른 식물을 가리키는 가능성이 보이기도 했다. 그리고 『동의보감』 초부 212종의 절반이 수록되지 않은 점도 문제로 보였다. 이들 문제에 대해서는 후속 연구에서 학명과 함께 면밀히 검토하면서 풀어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약용』의 ‘골자식물’ 227종 중 절반은 『동의보감』에서 ‘초부’로 분류되었다는 것은 바꾸어 말하면 근대에 약용식물로 이용되고 있던 식물의 절반은 ‘초부’였다는 것으로, 『동의보감』 초부의 중요성이 두드러지는 결과가 되었다.

현재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마트와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채소를 먹을 수밖에 없고 특별한 직업이나 취미를 가진 사람을 제외하면 유통되지 않은 식물을 먹을 기회가 거의 없다. 근대에는 300종을 넘었던 식용식물 민속지식은 현재 대부분이 사라졌다고 할 수 있다.

야생식용식물은 옛날 기근 때에 비상식이었지만, 현재는 입수하기 어렵고 손이 많이 가는 슬로우푸드로, 오히려 고급품이 되었다. 이것은 귀중한 문화콘텐츠라고 할 수 있다. 오랜 세월을 거쳐 형성된 식물민속지식을 수집하고 연구를 진행하여 그 성과를 현대에 활용하는 일은, 앞으로 생활을 풍부하게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연구는 민속지식을 현대에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준비단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1. 1차 자료

『동의보감』.

2. 단행본

이경준, 『산에 미래를 심다』. 서울대학교출판부, 2006.

纈纈 厚, 『[増補版]總力戰體制研究 日本陸軍の國家總動員構想』. 도쿄: 社会評論社, 2018.

服部健三·近藤信, 『食用植物學』. 도쿄: 南山堂書店, 1935.

山之内靖, 『總力戰體制』. 도쿄: 筑摩書房, 2015.

森爲三, 『朝鮮植物名彙』. 경성: 朝鮮總督府學務局, 1922.

植木秀幹·朝鮮總督府山林部, 『韓国併合史研究資料112 朝鮮の救荒植物/火田整理ニ関スル参考書』. 도쿄: 龍溪書舎, 2014.

朝鮮總督府, 『朝鮮植物名彙』. 경성: 朝鮮總督府學務局, 1922.

朝鮮總督府林業試驗場, 『林業試驗場報告 第22號 朝鮮産野生藥用植物』. 경성: 朝鮮總督府林業試驗場, 1936.

朝鮮總督府林業試驗場, 『林業試驗場報告 第33號 朝鮮産野生食用植物』. 경성: 朝鮮總督府林業試驗場, 1942.

朝鮮總督府林業試驗場, 『朝鮮森林植物編』. 高陽/京城: 朝鮮總督府林業試驗場, 1915-1939.

村田懋麿, 『土名對照 鮮滿植物字彙』. 도쿄: 目白書院, 1932.

3. 논문

김일권, 「전통시대 생물분류체계와 관련 문헌자료 고찰」. 『정신문화연구』 제38권 1호, 2015, 117-161쪽.

김재희, 「『임원경제지』의 나물과 21세기 민족식물학: 「관휴지(灌畦志)」와 「인제지(仁濟志)」를 중심으로」. 『민속학연구』 제36호, 2015, 59-84쪽.

森爲三, 「山野ニ自生セル植物中朝鮮人ノ食用ニ供スルモノニ就テ」. 『朝鮮總督府月

報』第3卷 第3號, 1913, 13-64쪽.

上田常一, 「森爲三先生の追憶」. 『朝鮮學報』 第26輯, 1963, 114-123쪽.

植木秀幹, 「朝鮮の救荒植物(承前完)」. 『朝鮮彙報』 11月號, 1919, 21-70쪽.

植木秀幹, 「朝鮮の救荒植物」. 『朝鮮彙報』 10月號, 1919, 58-136쪽.

辻 稜三, 「『朝鮮産野生食用植物』の内容とその資料的価値」. 『朝鮮學報』 第123輯, 1987, 153-177쪽.

[부록] 『동의보감』 초부(212종) 수록순 『약용』·『식용』 대조표

『동의보감』				『약용』			『식용』		
번호	품명	현대이름	항명	번호	쪽수	약명 조선명 한자명 일본명	번호	쪽수	조선명 한자명 일본명
초1	黃精/ 황정	죽대	뚝대	38	55	黃精 등굴네, 괴물굿 玉竹, 菱蕤 アマドコロ	39	92	등굴네, 가막물굿 小筆管菜, 黃精, 菱蕤, 玉竹 アマドコロ
초2	菖蒲/ 창포	석창포	석창포	26	43	菖蒲根 장포 白菖 シャウブ	-	-	-
초3	甘菊花/ 감국화	국화꽃	강성황	213	230	甘菊 감국 黃菊, 苦蕒 シマカンギク	280	205- 206	감국 甘菊, 黃菊, 苦蕒 シマカンギク, ハマカンギク
초4	白菊花/ 백국화	흰국화	흰국화	-	-	-	-	-	-
초5	苦蕒/ 고의	들국화	-	213		동상		205- 206	동상
초6	人參/ 인삼	인삼	삼	-	-	-	-	-	-
초7	天門冬/ 천문동	천문동	-	33	50	天門冬 부지깻나물, 홀이지쫄 地文冬 クサスギカヅラ	-	-	-
초8	甘草/ 감초	감초	-	-	-	-	-	-	-
초9	生地黃/ 생지황	생지황	-	191	208	地黃, 生地黃, 熟地黃, 乾地黃 디황 姿口爛 アカヤヂワウ	-	-	-

『동의보감』				『약용』			『식용』		
번호	품명	현대이름	항명	번호	쪽수	약명 조선명 한자명 일본명	번호	쪽수	조선명 한자명 일본명
초10	熟地黄/ 숙지황	숙지황	-	191	208	동상	-	-	-
초11	白朮/ 백출	삼주	삼두	209	226	蒼朮, 白朮 삼주 馬薊, 山薊 オケラ	272	202	삼주 山菜, 蒼朮, 白朮, 馬薊, 山薊, 創頭草 オケラ
초12	蒼朮/ 창출	창출	-	209	226	동상	272	202	동상
초13	兔絲子/ 토사자	새삼	새삼	-	-	-	-	-	-
초14	牛膝/ 우슬	쇠무릎	쇠무릎 디기	70	87	牛膝 쇠물딱 牛膝, 馬靑草 巾ノコヅチ	81	113	쇠물딱 山萇菜, 對節菜, 馬靑草, 牛膝 巾ノコヅチ
초15	茺蔚子/ 총울자	익모초	암눈비야	181	198	益母草, 茺蔚子 익모초 - メハジキ	-	-	-
초16	柴胡/ 시호	뫼미나리	뫼미나리	157	174	柴胡 뫼미나리, 시호 - ミシマサイコ	-	-	-
초17	麥門冬/ 맥문동	겨우살이	겨우사리	36	53	麥門冬, 大葉麥門冬 겨우사리불휘 (東醫), 비웃 - コヤブラン	-	-	-
초18	獨活/ 독활	뫼두릅	삿들흙	149	166	獨活(일명 土當歸) 뫼두릅 - ウド	191	165	뫼두릅 獨活, 土當歸, 杜當歸 マンセンウド

『동의보감』				『약용』			『식용』		
번호	품명	현대이름	항명	번호	쪽수	약명 조선명 한자명 일본명	번호	쪽수	조선명 한자명 일본명
초19	羌活/ 강활	강호리	강호리	154	171	羌活 강활 - テウセンオニウド	197	167	강활 羌活 テウセンオニウド
초20	升麻/ 승마	끼절가리	쇠덜가리	78	95	升麻 성마, 기멸가릿불휘(東醫) - オホミツノバシヨウマ	92	118	승마 升麻, 龍牙 フキシヤウマ
초21	車前子/ 차전자	질경이	길경이, - 노비빵이	195	212	車前子 질경이, 씨부장이 車輪菜, 車前草 オホバコ	240	186	질경이, 씨부장이, 뱀조개 車輪菜, 車前草, 芥苳 オホバコ
초22	木香/ 목향	목향풀	-	88	105	木防己 덩덩이덩굴 - アラツゾラフヂ	105	124	덩덩이덩굴 碧羅, 木防己, 木香 アラツゾラフヂ
초23	薯蕷/ 서여	마	마	41	58	山藥 마 薯蕷 ヤマノイモ	48	96	마 山芋, 薯蕷, 山藥 ヤマノイモ
초24	澤瀉/ 택사	쇠귀나물	쇠귀나 물	18	35	澤瀉 쇠귀나물 野茨菰, 水慈菰 オモダカ	12	79	쇠귀나물 苳芋, 澤瀉 オモダカ
초25	遠志/ 원지	애기풀	아기풀	133	150	遠志, 小草 원지 - イトヒメハギ	169	153	아기풀 地蒔草, 遠志, 瓜子金, 靈神草, 小草 ヒメハギ
초26	龍膽/ 용담	과남풀	과남풀	-	-	-	-	-	-

『동의보감』				『약용』			『식용』		
번호	품명	현대이름	항명	번호	쪽수	약명 조선명 한자명 일본명	번호	쪽수	조선명 한자명 일본명
초27	細辛/ 세신	족도리풀	-	61	78	細辛 족도리풀, 세신 - ウスバサイシン	-	-	-
초28	石斛/ 석곡	석곡풀	석곡풀	45	62	石斛 석곡, 석곡풀 林蘭 セキコク	-	-	-
초29	巴戟天/ 파극천	부조초	-	-	-	-	-	-	-
초30	赤箭/ 적전	천마, 수자해조 쭷	턴마	44	61	天麻, 赤箭 수자해쭷 - オニノヤガラ	-	-	-
초31	菴藷子/ 엄려자	개제비쑥	진주봉	-	-	-	-	-	-
초32	菴蓂子/ 석명자	굵은냉이	굴근나이	-	-	-	-	-	-
초33	卷栢/ 권백	부처손	부터손	7	24	卷栢 부처손(東醫), 바위손 長生草, 萬年松 イハヒバ	-	-	-
초34	藍藤根/ 남등근	가사새풀	가스새	-	-	-	-	-	-
초35	藍/남	쪽	족	-	-	-	-	-	-
초36	芎藭/ 궁궁	궁궁이	궁궁이	-	-	-	205	171	산미나리, 물뚝갈, 기름나물 石防風, 藎芎 シラカハバウフウ
초37	黃連/ 황련	깁깁이풀	-	-	-	-	-	-	-

『동의보감』				『약용』			『식용』		
번호	품명	현대이름	항명	번호	쪽수	약명 조선명 한자명 일본명	번호	쪽수	조선명 한자명 일본명
초38	絡石/ 낙석	담쟁이 덩굴	담쟁이	170	187	絡石 마사나무 白花藤 テイカカツラ	-	-	-
초39	薛荔/ 벽려	졸사철 나무	-	-	-	-	-	-	-
초40	白蒺藜/ 백질려	흰납가 새풀	납가시	124	141	白蒺藜 납가새 蒺藜藜 ハマビシ	-	-	-
초41	黃芪/ 황기	단너삼	돈너삼	114	131	黃芪 단너삼 - キバナワウギ	-	-	-
초42	肉蓯蓉/ 육종용	육종용	-	-	-	-	-	-	-
초43	防風/ 방풍	방풍	병풍누 물	159	176	防風 방풍 - ハマパウフウ	-	-	-
초44	蒲黃/ 포황	부들꽃 가루	부들솜 가루	17	34	蒲黃 부들, 부들박망이(芡) - コガマ	-	-	-
초45	續斷/ 속단	검살풀	-	185	202	續斷 속단 - オホバキセワタ	-	-	-
초46	漏蘆/ 누로	절구대	절구대	219	236	漏蘆 장구채, 등등박망이 - ヒゴタイ	-	-	-

『동의보감』				『약용』			『식용』		
번호	품명	현대이름	항명	번호	쪽수	약명 조선명 한자명 일본명	번호	쪽수	조선명 한자명 일본명
초47	營實/ 영실	질레나무	딜위	106	123	營實 가시나무 野薔薇, 葉王子 ノイバラ	140	140	질레나무, 가시나무 野薔薇, 葉王子, 營實 ノイバラ
초48	決明子/ 결명자	초결명	초결명	-	-	-	-	-	-
초49	丹參/ 단삼	단삼	-	-	-	-	-	-	-
초50	茜/천	꼭두서니	꼭도송	196	213	茜根 꼭두선이풀 茜草 アカネ	243	188	꼭두선이, 가삼자리 茜草, 茅蒐, 土茜苗, 過山龍 アカネ
초51	五味子/ 오미자	오미자	오미즈	90	107	五味子 오미자 - テウセンゴミシ	106	124	오미자 五味子, 北五味子 テウセンゴミシ
초52	旋花/ 선화	메꽃	멧꽃	-	-	-	220	178	메싸 續筋根, 薔子根, 美草, 旋花, 串枝蓮 ヒルガホ
초53	蘭草/ 난초	난초	-	-	-	-	-	-	-
초54	忍冬/ 인동	겨우살이 덩굴	겨우살리 녀출	197	214	忍冬, 金銀花 넉동덩굴 - スヒカヅラ	-	-	-
초55	蛇床子/ 사상자	뱀도라	뱀암도라	160	177	蛇床子 뱀암도랏(東醫) 破衣草, 窮衣 ヤブジラミ	210	173	뱀뒤틀기, 뱀암도랏 破衣草, 窮衣, 蛇床子 ヤブジラミ

『동의보감』				『약용』			『식용』		
번호	품명	현대이름	항명	번호	쪽수	약명 조선명 한자명 일본명	번호	쪽수	조선명 한자명 일본명
초56	地膚子/ 지부자	땃사리	대뻘리	69	86	地膚子 답사리 掃帚菜, ハハキギ	79	112	답사리 掃帚菜, 地膚草, 獨掃苗 ハハキギ
초57	景天/ 경천	평의비름, 돌나물	집우디기	-	-	-	122	132	집우지기 景天, 麒麟草 ホソバノキリンサウ
초58	茵陳蒿/ 인진호	더위지기, 사철쑥	더위자기	206	223	茵陳 사철쑥 - イハヨモギ	261, 265	196- 197, 198	사철쑥 靑蒿, 野苧蒿, 茵陳蒿 カハラニンジン 애당쑥 茵陳蒿 ハマヨモギ
초59	王不留行 /왕불류행	장구채	당고재	74	91	王不留行 림질초, 장고새, 매대초 女婁菜 フシグロ	-	-	-
초60	白蒿/ 백호	다복쑥	곤날제 흰뽕	-	-	-	-	-	-
초61	葇耳/ 시이	도꼬마리	돛고마리	225	242	蒼耳子 도꼬마리 葇耳, 靑葇子 ヲナモミ	-	-	-
초62	葛/갈	참	츄	-	-	-	-	-	-
초63	瓜蒌根/ 과루근	하늘타리	하늘타리	200	217	瓜蒌仁, 天花粉 하늘수박, 한울타리 藥瓜, 天瓜, 花苦瓜 テウセンカラスウリ	251	192	하늘수박, 한울타리 瓜蒌, 天瓜, 花苦瓜, 天團子 テウセンカラスウリ

『동의보감』				『약용』			『식용』		
번호	품명	현대이름	항명	번호	쪽수	약명 조선명 한자명 일본명	번호	쪽수	조선명 한자명 일본명
초64	苦參/ 고삼	쓴너삼, 도독놈의 지팡이	쓴너삼	120	137	苦參 뱀의정자나무 野槐 クララ	-	-	-
초65	當歸/ 당귀	승검초	승엄초	153	170	當歸 당귀, 승엄초(東醫) - オニノダケ	196	167	승엄초(東醫), 당귀 當歸 オニノダケ
초66	麻黃/ 마황	마황	-	-	-	-	-	-	-
초67	通草/ 통초	으름덩굴	으름 너출	63	80	通草, 通脫木 등취 - キダチウマノズ クサ	104	123	으름덩굴 山果, 林下婦人, 木通, 通草 アケビ
초68	芍藥/ 작약	함박꽃	함박꽃	81	98	赤芍藥 적작약, 함박꽃 木芍藥 シヤクヤク	-	-	-
초69	蠶/여	타래붓꽃	붓꽃	-	-	-	-	-	-
초70	瞿麥/ 구맥	패랭이꽃	석독화	-	-	-	-	-	-
초71	玄參/ 현삼	현삼	-	190	207	玄參 현삼 逐馬 ゴマノハグサ	-	-	-
초72	秦艽/ 진교	망초	망초	77	94	秦艽 진교 牛扁 ツルレイジンサウ	-	-	-

『동의보감』				『약용』			『식용』		
번호	품명	현대이름	항명	번호	쪽수	약명 조선명 한자명 일본명	번호	쪽수	조선명 한자명 일본명
초73	百合/ 백합	개나리	개나리	37	54	百合根 나리, 당개나리 卷丹, 家百合 オニユリ	35	90	당개나리 百合根, 家合, 卷丹 オニユリ
초74	知母/ 지모	지모	-	-	-	-	-	-	-
초75	貝母/ 패모	패모	-	-	-	-	-	-	-
초76	白芷/ 백지	구리때	구리대	152	169	白芷 구릿대 - コエゾニウ	194	166	구릿대 白芷 コエゾニウ
초77	淫羊藿/ 음양곽	삼지 구엽초	삼지 구엽플	85	102	淫羊藿 음양곽 三枝九葉草 テウセンイカリサウ	-	-	-
초78	黃芩/ 황금	속썩은풀	속서근플	186	203	黃芩 속서근플 - コガネバナ	234	184	속서근플 野樹豆花, 黃芩, 條芩, 腐腸 コガネバナ
초79	狗脊/ 구척	고비	-	-	-	-	-	-	-
초80	茅/모	띠	뽕	19	36	茅根 씩 白茅, 茅針, 茅草 チガヤ	-	-	-
초81	紫菀/ 자완	탕알	팅알	208	225	紫菀 개미취 - シラン	271	202	개미취, 미역취 紫菀, 返魔草 シラン
초82	紫草/ 지초	지치	지최	175	192	紫草 지초	-	-	-

『동의보감』				『약용』			『식용』		
번호	품명	현대이름	항명	번호	쪽수	약명 조선명 한자명 일본명	번호	쪽수	조선명 한자명 일본명
						藐苳草 ムラサキ			
초83	前胡/ 전호	사양채	사양치	156	173	前胡 동치, 사양채 - シヤク	195	166	바대나물, 개당귀 前胡 ノダケ?
초84	敗醬/ 패장	마타리	-	-	-	-	248	191	개미취, 맛타리 女郎花, 敗醬, 黃花龍芽, 馬草 ヲミナヘシ
초85	白鮮/ 백선	검화	검화	125	142	白鮮皮 검흰불황 - ハクセン	-	-	-
초86	酸漿/ 산장	파리	소아리	188	205	酸漿 파리, 멩팔 姑娘菜 ホホヅキ	236	185	파리, 멩팔 姑娘菜, 酸漿草, 燈籠草, 王母珠 ホホヅキ
초87	藁本/ 고본	고본	-	155	172	藁本 고본 - ニホヒウヅキヤウ	-	-	-
초88	石韋/ 석위	석위	-	1	18	石韋 석위 - ヒメヒトツバ	-	-	-
초89	瓦韋/ 와위	와위	-	-	-	-	-	-	-
초90	葶藶/ 비해	멸애	멸애	-	-	-	-	-	-
초91	白薇/ 백미	아마존	아마존	173	190	白薇 산수박	-	-	-

『동의보감』				『약용』			『식용』		
번호	품명	현대이름	항명	번호	쪽수	약명 조선명 한자명 일본명	번호	쪽수	조선명 한자명 일본명
						萬年草, 竹葉細辛, 徐長卿 スズサイコ			
초92	大靑/ 대청	당청화	-	-	-	-	-	-	-
초93	艾葉/ 애엽	약쑥잎	스지발 쑥	-	246 (補 遺)	(‘民間で生薬とし て稀に使用される’) 약쑥 ホソバヨモギ	264	198	참쑥, 부엉다리쑥 艾蒿, 艾 ホソバヨモギ
초94	惡實/ 악실	우엉	우윙	-	-	-	-	-	-
초95	水萍/ 수평	수평	-	29	46	浮萍 개구리밥 水萍 アラウキクサ	-	-	-
초96	浮萍/ 부평	개구리밥	머구리밥	29	46	동상	-	-	-
초97	王瓜/ 왕과	쥐참외	쥐참외	-	-	-	-	-	-
초98	地榆/ 지유	외나무, 수박풀	외나무	109	126	地榆 수박풀, 지유초, 외풀 地果, 野升麻 ワレモカウ	147	143	수박풀, 지유초, 외풀 地榆, 地果, 野升麻 ワレモカウ
초99	大薊/ 대계	영경귀	항가시	216	233	大薊 영경귀, 가시나무 - カラノアザミ	277, 282	204, 206	ヒレアザミ 영거시 飛廉, 飛維, 大薊 가시나무, 여경귀 小薊, 刺薊, 大薊 カラノアザミ
초	小薊/ 조방가새	조방가시	조방가시	217	234	小薊	282,	206,	동상

『동의보감』				『약용』			『식용』		
번호	품명	현대이름	항명	번호	쪽수	약명 조선명 한자명 일본명	번호	쪽수	조선명 한자명 일본명
100	소계					조바리 - テウセンアザミ	283	207	조바리, 사라귀 小薊 テウセンアザミ
초 101	澤蘭/ 택란	택란	-	182	199	澤蘭 개조박이, 십사리 地瓜兒苗 シロネ	227	181	개조박이, 십사리 玉環菜, 地瓜兒苗, 澤蘭 シロネ
초 102	防己/ 방기	방기	-	-	-	-	-	-	-
초 103	天麻/ 천마	수자해쫄	슈자히쫄	44	61	초30과 동일	-	-	-
초 104	阿魏/ 아위	아위	-	-	-	-	-	-	-
초 105	高良薑/ 고량강	양강	-	-	-	-	-	-	-
초 106	百部/ 백부	파부초	-	-	-	-	-	-	-
초 107	茴香/ 회향	회향풀	-	-	-	-	-	-	-
초 108	款冬花/ 관동화	관동화	-	-	-	-	-	-	-
초 109	紅藍花/ 홍람화	잇꽃	닛	-	-	-	-	-	-
초 110	臙脂/ 연지	연지	-	-	-	-	-	-	-
초 111	牡丹/ 목단	모란	모란	-	-	-	-	-	-
초 112	三稜/ 삼릉	매자기	미자기	-	-	-	-	-	-
초 113	薑黃/ 강황	강황	-	-	-	-	-	-	-

『동의보감』				『약용』			『식용』		
번호	품명	현대이름	항명	번호	쪽수	약명 조선명 한자명 일본명	번호	쪽수	조선명 한자명 일본명
초 114	華撥/ 필발	필발	-	-	-	-	-	-	-
초 115	羅摩子/ 나마자	새박덩굴	새박	-	-	-	-	-	-
초 116	鬱金/ 울금	심황	심황	-	-	-	-	-	-
초 117	盧薺/ 노회	알로에	-	-	-	-	-	-	-
초 118	玄胡索/ 현호색	현호색	-	-	-	-	-	-	-
초 119	肉豆蔻/ 육두구	육두구	-	-	-	-	-	-	-
초 120	補骨脂/ 보골지	파고지	-	-	-	-	-	-	-
초 121	零陵香/ 영릉향	혜초	-	-	-	-	-	-	-
초 122	縮砂蜜/ 축사밀	사인	-	-	-	-	-	-	-
초 123	蓬莪朮/ 봉아술	봉출	-	-	-	-	-	-	-
초 124	葶草/ 홍초	불경이	노화	64	81	蔘實 노인장새 - オホケタデ	70	108	노인장때 馬蔘, 葶草, 大蔘 オホケタデ
초 125	莎草/ 사초	향부자	향부즈	-	-	-	-	-	-
초 126	胡黃連/ 호황련	호황련	-	-	-	-	-	-	-
초 127	紅豆蔻/ 홍두구	홍두구	-	-	-	-	-	-	-
초 128	甘松香/ 감송향	감송향	-	-	-	-	-	-	-

『동의보감』				『약용』			『식용』		
번호	품명	현대이름	항명	번호	쪽수	약명 조선명 한자명 일본명	번호	쪽수	조선명 한자명 일본명
초 129	垣衣/ 원의	담위의 이끼	담우희 잇기	-	-	-	-	-	-
초 130	地衣/ 지의	땅에 낀 이끼	싸해끼 인잇기	-	-	-	-	-	-
초 131	井中苔/ 정중태	우물 속의 이끼	-	-	-	-	-	-	-
초 132	屋遊/ 옥유	옥유	-	-	-	-	-	-	-
초 133	鱧腸/ 예장	한련초	한년초	-	-	-	-	-	-
초 134	茅香花/ 모향화	흰띠꽃	흰쉬숫	-	-	-	-	-	-
초 135	使君子/ 사군자	사군자	-	-	-	-	-	-	-
초 136	白豆蔻/ 백두구	백두구	-	-	-	-	-	-	-
초 137	附子/ 부자	바꽃	-	-	-	-	-	-	-
초 138	烏頭/ 오두	오두	-	75	92	草烏, 烏頭 박우초, 싸막풀 藤兒島 ツルウツ	90	117	늦저갈나물, 박우초, 까막풀 草烏, 鴛鴦菊 ツルウツ
초 139	天雄/ 천웅	천웅	-	-	-	-	-	-	-
초 140	半夏/ 반하	끼무릇	식물웃	28	45	半夏 반하, 끼무릇 - カラスビシャク	-	-	-
초 141	大黃/ 대황	장군풀	장군풀	68	85	大黃 장군풀 - カラダイワウ	-	-	-

『동의보감』				『약용』			『식용』		
번호	품명	현대이름	항명	번호	쪽수	약명 조선명 한자명 일본명	번호	쪽수	조선명 한자명 일본명
초 142	葶藶子/ 정력자	두루미 냉이	두르미 나이	96	113	葶藶子 냉이 - ヒメグンバイナツナ	118	130	냉이 過藍菜, 葶藶子 ヒメグンバイナツナ
초 143	菘蓍子/ 낭탕자	미치광이	초우윙	-	-	-	-	-	-
초 144	草蒿/ 초호	제비숙	저비썩	-	-	-	-	-	-
초 145	旋覆花/ 선복화	히국꽃	히국	221	238	旋覆花 들국화, 옷풀 金佛草 ラグルマ	-	-	-
초 146	藜蘆/ 여로	박새	박새	40	57	藜蘆 백영초, 박새, 백광노 山葱 シユロサウ	-	-	-
초 147	射干/ 사간	범부채	범부채	42	59	射干 범부채 蕭竹 ヒアフギ	49	97	범부채 虎扇草, 蕭竹蘭, 射干花 ヒアフギ
초 148	蛇含/ 사함	뱀혀	비아미혀	-	-	-	139	139- 140	가락지나물, 흔디딸기덤불 蛇含草, 五兒頭苗, 五皮楓 ヲヘビイチゴ
초 149	常山/ 상산	조팝나무	조팝나무	-	-	-	-	-	-
초 150	甘遂/ 감수	감수	-	-	-	-	-	-	-

『동의보감』				『약용』			『식용』		
번호	품명	현대이름	항명	번호	쪽수	약명 조선명 한자명 일본명	번호	쪽수	조선명 한자명 일본명
초 151	白斂/ 백렴	가위톱	가희톱	-	-	-	-	-	-
초 152	赤斂/ 적렴	빨간가위톱	-	-	-	-	-	-	-
초 153	白芨/ 백급	대암풀	대암풀	-	-	-	-	-	-
초 154	大戟/ 대극	버들웃	버들웃	134	151	大戟 우독초, 능수버들 愚毒草, 勒馬宣 タカトウダイ	166	152	우독초, 능수버들 愚毒草, 澤漆, 大戟, 猫兒眼睛, 勒馬宣 トウダイグサ
초 155	澤漆/ 택칠	버들웃싸	-	134	151	동상	166	152	동상
초 156	貫衆/ 관중	회초미	회초미	-	-	-	-	-	-
초 157	狼牙/ 낭아	낭아초	낭아초	102	119	狼牙, 龍牙草 집신초 - キンミツヒキ	133	137	집신나물 金線草, 龍牙草, 狼牙 キンミツヒキ
초 158	羊躑躅/ 양척촉	철쭉꽃	턱툭곳	-	-	-	-	-	-
초 159	商陸/ 상륙	자리공	자리공	71	88	商陸 장녹, 자리공불휘 昌陸, 當陸 ヤマゴバウ	83	114	장녹, 자리공불휘 商陸, 章柳根, 常陸 ヤマゴバウ
초 160	靑箱子/ 청상자	맨드라미	만드라미	-	-	-	-	-	-
초 161	威靈仙/ 위령선	으아리, 수취나물	술취나물	-	-	-	-	-	-
초 162	牽牛子/ 견우자	나팔꽃	-	-	-	-	-	-	-
초 163	蓴麻子/ 비마자	아주까리	아줏가리	-	-	-	-	-	-

『동의보감』				『약용』			『식용』		
번호	품명	현대이름	항명	번호	쪽수	약명 조선명 한자명 일본명	번호	쪽수	조선명 한자명 일본명
초 164	蒴藋/ 삭조	말오줌나무	말오줌나무	-	-	-	-	-	-
초 165	天南星/ 천남성	두여머 조자기	두여머 조자기	27	44	天南星 턴남성 - ヒロハテンナンセウ	16	81	턴남성 天南星, 虎掌草 アムールテンナンセウ
초 166	鬼臼/ 귀구	귀구	-	-	-	-	-	-	-
초 167	羊蹄/ 양제	소루쟁이	-	67	84	羊蹄根 소리장이, 솔고지 牛舌 ナガバギシギシ	77	111	솔구장이, 소리장이 敗毒, 羊蹄草, 牛舌草 ギシギシ
초 168	酸模/ 산모	승아	승아	245	補遺	괴싱아 スイバ	76	111	시금, 시광이 酸漿草, 酸模, 山羊蹄, 牛舌頭 スイバ/スカンポ
초 169	菰根/ 고근	졸	-	-	-	-	-	-	-
초 170	蕭蓄/ 편축	온마답	온마답	65	82	蕭蓄 노가리초, 옥매듭, 매대풀 百節 ミチャナギ	75	110	노가리초, 옥매듭 百節, 蕭竹, 蕭蓄 ミチャナギ/ニハヤナ ギ
초 171	狼毒/ 낭독	오독도기	오독뽕기	135	152	狼毒 오독독이 - ヒロハタカトウダイ	-	-	-
초 172	菴蓂/ 희렴	진득찰	핀흙찰, 진득찰	-	-	-	-	-	-
초 173	苧根/ 저근	모시풀	모시	-	-	-	-	-	-

『동의보감』				『약용』			『식용』		
번호	품명	현대이름	항명	번호	쪽수	약명 조선명 한자명 일본명	번호	쪽수	조선명 한자명 일본명
초 174	馬鞭草/ 마편초	마편초	-	177	194	馬鞭草 마편초 鐵馬鞭 クマツヅラ	-	-	-
초 175	何首烏/ 하수오	새박뿌리, 온조롱	江原道名 온조롱, 黃海道名 새박	-	-	-	-	-	-
초 176	白頭翁/ 백두옹	할미꽃	주지꽃, 又云할미 십가비	83	100	白頭翁 할미꽃 老姑草 テウセンオキナグサ	-	-	-
초 177	芭蕉/ 파초	파초	반초	-	-	-	-	-	-
초 178	蘆/노근	갈대	굴	-	-	-	-	-	-
초 179	馬兜鈴/ 마두령	쥐방울	쥐방울	62	79	馬兜鈴 쥐방울덩굴 - マルバノウマノズクサ	-	-	-
초 180	劉寄奴草 /유기노초	유기노초	-	-	-	-	-	-	-
초 181	骨碎補/ 골쇄보	넉줄고사리	-	-	-	-	-	-	-
초 182	連翹/ 연교	개나리	어어나모	165	182	連翹 신리화, 개나리꽃나무 辛夷 テウセンレンゲウ	-	-	-
초 183	續隨子/ 속수자	연보	-	-	-	-	-	-	-

『동의보감』				『약용』			『식용』		
번호	품명	현대이름	항명	번호	쪽수	약명 조선명 한자명 일본명	번호	쪽수	조선명 한자명 일본명
초 184	藜茹/ 여여	여여	-	-	-	-	-	-	-
초 185	蛇莓/ 사매	뱀딸기	비암딸기	103	120	蛇莓 배암딸기, 개미딸 雞冠果, 野楊梅 ヘビイチゴ	134	138	배암딸기, 개미딸 雞冠果, 野楊梅, 蛇莓 ヘビイチゴ
초 186	葎草/ 울초	한삼덩굴	한삼	補遺 (未 利用 野生 藥用 植物)	248	カナムグラ 葎草	67	107	한삼덩굴 葎草, 勒藥, 葛勒子秧 カナムグラ
초 187	鶴虱/ 학슬	여우 오줌풀	여의오줌	211	228	鶴虱 천일초 金空耳 ガンクピサウ	-	-	-
초 188	雀麥/ 작맥	귀리	귀보리	-	-	-	-	-	-
초 189	白附子/ 백부자	흰바곳	흰바곳	76	93	白附子 백부자, 초오 - キバナトリカブト	90	117	초138와 동일(늦저갈나무, 박우초, 까막풀 草烏, 鴛鴦菊 ツルウツ), 유사식용종으로 キバナトリカブト 기재
초 190	葫蘆巴/ 호로파	호로파	-	-	-	-	-	-	-
초 191	木賊/ 목적	속새	속새	5	22	木賊 속새 - トクサ	-	-	-

『동의보감』				『약용』			『식용』		
번호	품명	현대이름	항명	번호	쪽수	약명 조선명 한자명 일본명	번호	쪽수	조선명 한자명 일본명
초 192	蒲公英/ 포공초	민들레	안질방이, 又名므음 드레	224	241	蒲公英 민들네, 안질방이 白鼓釘, 蒲公英 ケイリントンポポ	304	217	민들네, 안질방이 李李丁菜, 蒲公英, 白鼓釘 マンセンタンポポ
초 193	穀精草/ 곡정초	고위까람	고윗가름	30	47	穀精草 고위까름 文星草 ホシクサ	-	-	-
초 194	酢漿草/ 초장초	괴승아, 괘이밥	괴승아	123	140	酢漿草 시금풀 酸米草 カタバミサウ	161	149	시금풀, 괴승아 酢漿草, 酸米草 タチカタバミ (カタバミサウは類似 植物にあり)
초 195	昨葉荷草 /작엽하초	지부지기	짐우디기	-	-	-	-	-	-
초 196	夏枯草/ 하교초	제비꽃	저비꽃	59	76	夏枯草 저비꽃 白薺草 カナビキサウ	232	183	가지꽃나물, 꿀박망이, 가지복도리 夏枯草, 乃束草, 鐵色草 ウソボクサ
초 197	山茨菰/ 산자고	까치무릇	가치무릇	-	-	-	-	-	-
초 198	燈心草/ 등심초	골풀, 골숙	골숙	31	48	燈心草 골숙, 조릿대속 莞, 燈草 ト	-	-	-
초 199	馬勃/ 마밭	말불버섯	물불버섯	-	-	-	-	-	-
초 200	水蓼/ 수료	물여귀	물엿귀	-	-	-	-	-	-
초 201	萱草/ 흰초근	원추리	원추리, 又名넙 낙물	35	52	萱草 원추리 黃花菜, 金萱 エソゼンテイクワ	31	88	원추리 黃花菜, 金萱草 エソゼンテイクワ

『동의보감』				『약용』			『식용』		
번호	품명	현대이름	항명	번호	쪽수	약명 조선명 한자명 일본명	번호	쪽수	조선명 한자명 일본명
초 202	野茨菰/ 야자고	무릇	물웃	18	35	澤瀉 쇠귀나물 野茨菰, 水慈菰 オモダカ	41	93	물긋, 무릇쌈 野茨菰, 剪刀草 ツルボ, サンタイカサ
초 203	敗天公/ 패천공	오래 쓴 패랭이	오래쓰던 퍼랭이	-	-	-	-	-	-
초 204	草豆蔻/ 초두구	초두구	-	-	-	-	-	-	-
초 205	草果/ 초과	초과	-	-	-	-	-	-	-
초 206	虎杖/ 호장	감제	감데	66	83	虎杖根 감절매, 감젓썰취 苦杖, 大蟲杖, 酸桶笋 マルバイタドリ	74	110	싱아 虎杖根 オホオヤマソバ
초 207	草烏/ 초오	바곳	바곳	75	92	초138, 초189와 동일(草烏, 烏頭 박우초, 사막풀 藤兒島 ツルウツ)	90	117	초138, 초189와 동일(늦겨갈나무, 박우초, 까막풀 草烏, 鴛鴦菊 ツルウツ))
초 208	佛耳草/ 불이초	떡쑥	-	-	-	-	286	208	과쑥 清明草, 佛耳草, 鼠麴草 テウセンウススキサウ
초 209	菑實/ 경실	어저귀	어저귀	-	-	-	-	-	-
초 210	鳳仙花/ 봉선화	봉선화	봉선화	-	-	-	-	-	-
초 211	孩兒茶/ 해아다	해아다	-	-	-	-	-	-	-
초 212	屨屨鼻繩 /극섬비승	나막신 앞코	평격지압코	-	-	-	-	-	-

국문초록

본 연구는 근대화 이전 민속지식의 근대적 변용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서 식물에 주목하여 조선 중기의 대표적인 텍스트인 『동의보감』(1613)과 근대의 『조선산 야생약용식물』(1936), 『조선산 야생식용식물』(1942)을 사용해서 대조를 하였다. 이에 앞서 한반도 문헌상의 식용식물 민속지식의 형성과정을 야생식물을 중심으로 간단하게 정리하였으며 민속식물연구에 아직 잘 활용되고 있지 않은 『조선산 야생약용식물』과 『조선산 야생식용식물』에 대해서 간략하게 자료소개를 하였다. 야생식용식물은 전근대시기인 19세기 초에 이미 200여종이 인식되고 있었으며, 근대에 이르러 근대적 방법으로 재인식되고 그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는 상황이었다.

자료 대조 결과 『동의보감』 초부에 수록된 212종의 식물 중 『조선산 야생약용식물』에는 거의 절반이 수록되어 있었으며 『조선산 야생식용식물』에는 약 30%가 수록되어 있었다. 그러므로 『동의보감』 초부에 수록된 식물이 근대에는 절반이 약용으로 사용되고 있었으며 약 30%가 식용으로 사용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조선산 야생약용식물』의 ‘골자(骨子)식물’ 227종 중 절반은 『동의보감』에서 ‘초부’로 분류되었다는 것은 바꾸어 말하면 근대에 약용식물로 이용되고 있던 식물의 절반은 ‘초부’였다는 것으로, 『동의보감』 초부의 중요성이 두드러지는 결과가 되었다.

투고일 2020. 3. 19.

심사일 2020. 7. 6.

게재 확정일 2020. 7. 29.

주제어(keyword) 식물민속지식(botanical folk knowledge), 민속식물(folk plants), 동의보감(Donguibogam), 조선산 야생약용식물(Wild Medical Plants From Joseon), 조선산 야생식용식물(Wild Edible Plants From Joseon)

Abstracts

Botanical Folk Knowledge in the Early 20th Century-Focusing on Plants Collected in the Plants of *Dong-uibogam*

Nomura, Michiyo

This study compared the representative text, *Dong-uibogam*(1613), written in the mid-Joseon Dynasty with two modern texts, such as *Wild Medical Plants From Joseon*(1936) and *Wild Edible Plants From Joseon*(1942). Before then, it simply arranged the processes in which the folk knowledge of edible plants included in the Korean peninsula literature has been formed and introduced some data of *Wild Medical Plants From Joseon* and *Wild Edible Plants From Joseon*, which have not yet actively used in studies on folk plants. About 200 kinds of wild medical plants had been already recognized in the early 19th century, pre-modern times, and then were re-recognized with modernistic methodology by modern times and the resulting records of them have remained.

The contrast of data shows that almost half of 212 kinds of plants collected in the Plants of *Dong-uibogam* were recorded in *Wild Medical Plants From Joseon*, while about 30% of them were included in *Wild Edible Plants From Joseon*. It can be therefore found that among all of plants collected in the Plants of *Dong-uibogam*, half of them and about 30% of them were used for medicine and for food, respectively. Half of 227 kinds of 'essential plants' in *Wild Medical Plants From Joseon* were classified as 'Plants' in *Dong-uibogam*, in other words, half of plants used for medicine in modern times was 'Plants', indicating that the important of the Plants in *Dong-uibogam* should be emphasized.

